

ISSN 1223-9683

# 博物館紀要

17

- 고고 · 역사학 분야 -

2002. 12.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 刊 行 辭

이번에는 陳田寺 특집호로 편집하였다. 陳田寺는 禪宗의 근본 도량으로서 新羅 禪宗의 宗祖인 道義國師가 오랫동안 住錫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禪宗의 宗刹이다.

그동안 本博物館에서는 1965년 처음 이곳을 발견, 조사한 이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6년간에 걸쳐 상·하 절터를 試掘하여 陳田寺 옛 터임을 확인하였고, 法堂과 石塔, 建物들의 옛 자리를 찾아내어 앞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찾기도 하였다. 그리고 韓國 禪宗의 初祖인 道義國師의 事蹟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宗刹인 이곳 陳田寺를 重創 復原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밀한 발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의 규모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조계종의 宗刹이라는 점에서 옛 절터에 陳田寺를 중창 복원할 것을 인정하여, 조계종 당국에서 2003년도부터는 중창불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본박물관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8일 개최한 「제17회 석주선기념박물관 정기연구발표회」에서 陳田寺의 사적과 특히 道義國師에 대한 역사적 위상 정립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번 특집호에는 이때 발표한 陳田寺와 道義國師의 事蹟을 비롯하여 두 차례 실시한 陳田寺址에 대한 발굴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遺構는 앞으로 진행할 중창복원설계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陳田寺와 道義國師의 事蹟은 禪宗과 道義國師 연구에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2002년 12월 30일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장 정 영 호

## 차 례

### ■ 논 문

陳田寺와 道義國師의 事蹟研究 ..... 鄭 永 鎬 ..... 5

最近 陳田寺址 發掘調査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 池 賢 柄 ..... 39

■ 휘 보 ..... 73

■ 구입 및 기증 받은 도서목록 ..... 77



# 陳田寺와 道義國師의 事蹟研究

鄭 永 鎬\*

## 目 次

- |                |                 |
|----------------|-----------------|
| I. 序言          | V. 遺蹟과 遺物       |
| II. 陳田寺址의 發見調査 | 1. 現地에서의 傳聞     |
| 1. 寺址의 發見      | 2. 寺址와 三層石塔     |
| 2. 現地調査        | 3. 道義國師浮屠       |
| 3. 石造物의 復原     | 4. 佛座中臺石과 其他 遺物 |
| III. 陳田寺의 事蹟   | VI. 結語          |
| IV. 禪宗初祖 道義國師  |                 |

## I. 序 言

道義國師께서 雪岳 陳田寺에 住錫하면서 禪風을 크게 일으켜 廉居和尚과 普照國師 등에게 法統을 전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알고 있었으나, 陳田寺 옛터가 강원도 襄陽郡 降峴面, 즉 3·8이북 지역이어서 현지조사가 불가능하였었다. 그러나 6·25동란 이후 이곳 양양군 일대가 수복되어 현지답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1965년 3월 필자가 당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의뢰받아 비로소 현지를 답사하게 되었다.

\*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겸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이때부터 陳田寺址와 인연을 맺게 되어 이후 道義國師의 사적을 찾아 진전사지 뿐만 아니라 道義國師를 開山祖師로 모시고 있는 寶林寺의 유적·유물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상·하 절터에 대한 試掘調査를 진행하여 여러 가지 사적을 추정하고 유적을 고증하였었다(사진 27~30참조).

통일신라시대부터 일어난 九山禪門 가운데 迦智山門의 祖師인 道義國師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南禪宗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道義國師를 大韓佛敎 曹溪宗의 宗祖師로 모시고있는 것이니 조계종의 宗憲에 『本宗은 新羅 憲德王 5년에 曹溪慧能大師의 曾法孫 西堂 智藏禪師에게서 心印을 받은 道義國師를 宗祖로 하고 高麗의 太古 普愚國師를 中興祖로 하여 이하 淸虛와 浮林 兩法脈을 繼繼承承한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통일신라시대에도 道義國師를 선종의 第一祖師로 추앙하고 있었으니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의 寶林寺에 보존되어 있는 普照禪師彰聖塔碑(보물 제158호, 신라 헌강왕10년, 884)의 비문에 『達摩爲唐第一祖 我國則以儀大師爲第一祖 居禪師爲第二祖 我師第三祖』라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 선종의 宗祖요, 조계종의 종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道義國師에 대한 연구와 조명, 그리고 이에 따르는 추모행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진전사에 대한 고찰과 조명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뜻에서 宗祖의 위상 정립과 종조에 대한 선양과 추모는 조계종의 유구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함에는 물론 진전사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陳田寺址에 대한 사적 연구와 道義國師의 업적 및 위상 정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기술할 내용은 진전사지에 있어서 도량의 유적 유물을 살펴보고 또한 道義國師와 관련된 사적들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선 진전사지의 발견조사와 진전사의 사적을 고찰하고 신라 선종의 初祖인 道義國師의 역사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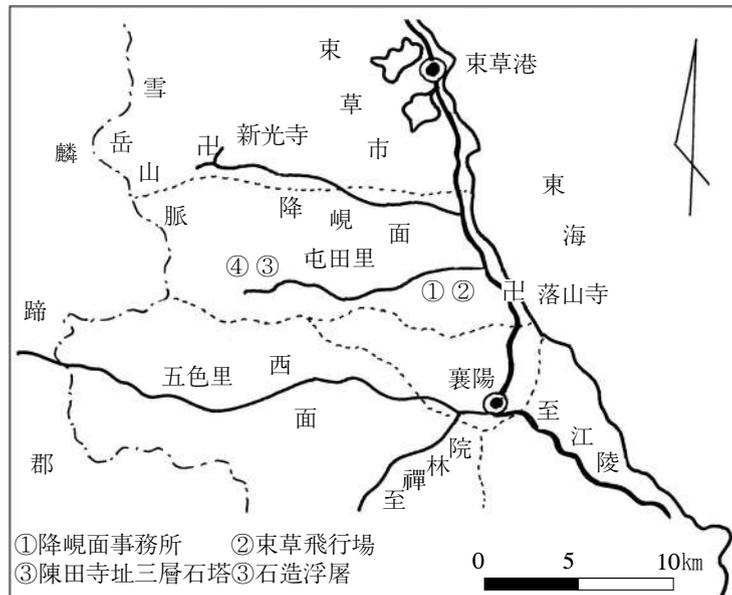
## II. 陳田寺址의 發見調査

### 1. 寺址의 發見

江原道 襄陽郡 降峴面 屯田里에 陳田寺址가 남아 있다. 이곳은 襄陽邑에서 束草行 車

도로 약 12km되는 降峴面事務所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서쪽으로 통한 도로로 7km 쯤 가면 屯田里이고 이 마을에서 서편 溪流를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속칭 탑골(塔谷)이라는 곳인데, 現在 屯田里 100번지 발 가운데 三層石塔 1基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는 곧 이 일대가 절터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약 600m지 점 소구릉에 石造浮屠 1基가 남아있으며 건물지로 추정되는 넓은 곳이 있는데 현재는 경작지로 변해졌다.

큰 길가에서 이 깊숙한 계곡까지 山坂通路가 오래 전부터 개통되었던 것이나, 屯田里 입구에 東海岸地區防衛司令部가 설치되면서부터 이 작은 길은 군사도로로서 더욱 넓혀 지고 정지되어 이제는 큰 차량으로도 유적 현장까지 쉽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위에서 말한 동방사 부지에 東草 飛行場이 건설되어 대한항공과 극동항공이 개항되어서 서울에서 교통편은 아주 쉽게 되었다(지도 1)(1969년도 당시).



지도 1. 陳田寺址 位置圖

이곳 陳田寺址는 石塔과 浮屠가 건립되어 있는 일대가 될 것인바 동리에서도 「陳田寺」 터라고 전해내려 온다는데 이 지역에서 「陳田」銘의 기와편도 수집된 바 있어 陳田寺址 임에는 틀림없다(사진 1).



사진 1. 「陳田」銘 평기와편

다만 과거 寺刹의 존속 여부는 「梵宇攷」나 「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에도 없는 점으로 보아 폐사된 지는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 오랫동안 寺院으로서의 존재는 전해지지 않았고 그 遺址에 남아있는 三層石塔과 石造浮屠만이 알려지기에 관한 약간의 기록<sup>1)</sup>이 있으나 이것도 두 유물

의 존재만을 알릴 뿐 이들 기록으로는 형태를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지명표에 不過한 정도였다. 그리고 이곳은 6·25 전쟁 후의 수복지구이어서 일찍이 상세하게 조사된 바가 없었으며 1965년도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필자가 現地를 답사하면서부터 주목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곧 두 유물 가운데 三層石塔은 국보 제122호로, 石造浮屠는 보물 439호로 각각 지정 보호하게 되었다. 이어 1968년 4월말에 石塔은 전면적인 해체복원을 하였고, 浮屠는 무너진 각 부분을 수습하여 완전히 復原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指定文化財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처음 조사때 부터 국보·보물 指定 그리고 복원 및 보호대책에 이르기까지 그 임무를 전담하였으므로 石塔과 浮屠의 復原까지도 내용에 포함하여 이곳 陳田寺址 유적 조사를 쓰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기술하려는 본장의 내용은 文獻上으로 본 陳田寺의 事蹟과 현존 절터의 유적 및 유물 조사경위를 밝히면서 형태와 구조 양식 등을 고찰하고 끝을 맺을까 한다.

1)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年 3月刊) 542쪽에 襄陽郡 降峴面屯田里寺址에 대하여……「屯田里部落, 西方 約二百五十間, 田中ニ 在リ 屯田寺址. 塔 一基 アリ稍完全」이라 있는데 여기의 「屯田寺址」라 칭한 것은 洞名인 屯田里에서 由來된 것이겠으나 이것은 「陳田」의 誤記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降峴面 屯田里 庵址에 대하여 「屯田里 部落, 西方 約三百五十間, 小峰筋ニ 在リ舍利塔 一基 アリ 完全」이라 했다.

杉山信三著, 「朝鮮의 石塔」(東京 1944年 3月刊) 208쪽에 襄陽屯田里三層石塔(襄陽郡降峴面屯田里)…「新羅式 一般型にして その 下成基壇 軸部に 天人. 上成基壇に 八部衆. 初層軸部に如來形の 四佛を刻むて いる。」라 있고 또 襄陽屯田里浮屠(襄陽郡降峴面屯田里)…「身部の 八角圓堂型である こと 他と 同様であるが, 臺座を 一般型石塔の 二成基壇と 同形式の ものを用ひてゐるのを この 浮屠の 特色と すべきであらう」라고만 하였다.

## 2. 現地調査

필자가 이곳을 주목하게 된 것은 196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양양지구의 몇몇 유적을 조사한 뒤부터이다. 수복이후 雪岳山 新興寺와 香城寺址, 또는 襄陽 洛山寺 等の 여러 유적을 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陳田寺址의 주목은 없었다.

1965년 3월 10일부터 5일간 문교부 文化財委員會의 위촉으로 필자는 처음으로 陳田寺址를 비롯한 양양군내의 여러 유적을 답사하게 되었다.<sup>2)</sup> 이때 현지 양양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문교부에 보고된 사항을 보면 “新興寺에 있다고 말하는 「한학수」 등 2명의 승려가 와서 인부를 동원시켜 同郡 西面 黃耳里 米川谷에 位置한 禪林院址의 석탑·석등·부도 등 여러 유물을 新興寺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편 降峴面 屯田里에 있는 三層石塔을 洛山寺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어서 필자가 급파되어 진상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이때 禪林院址의 여러 유물은 옮길 준비가 거의 완료된 단계이고 陳田寺址 三層石塔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으나 곧 옮길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말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곧 文化財委員會에 사태수습이 급함을 보고하여 우선 이들 유물은 假指定하여 원위치에 보존토록 조치하였다.

당시 陳田寺址 三層石塔은 하층 기단부가 잡석에 묻혔고 상층 기단부는 북쪽 면석 1枚石이 떨어져 나갔으며 각 면석과 甲石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져 무너질 우려가 있었다 (사진 2).



사진 2. 陳田寺址 三層石塔(1965년 3월 發見 당시)

2) 拙稿：『襄陽遺蹟調査』『考古美術』第六卷 第三・四號 合輯 通卷第五十六・七(考古美術同人會刊 1965年 4月)뉴스欄 參照.

그후 11월 하순에 黃壽永教授(당시 東國大學校 博物館長)와 申榮勳(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氏의 襄陽地區調査로 陳田寺址 石造浮屠의 존재를 재차 확인하게 되었고, 12월 초순에는 禪林院址 여러 유물<sup>3)</sup>의 복원을 지도하기 위하여 다시 襄陽에 갔을 때 陳田寺址를 다시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sup>4)</sup> 이 때 申榮勳·李宗碩 兩氏가 같이 갔는데 三層石塔은 각 부재가 여전히 산만하여 무너지기 직전이었으며 石造浮屠는 이미 무너져 부재가 흩어져있었다(사진 3).



사진 3. 完全히 倒壞되었던 石造浮屠(1965年 3月)

무너질 때의 상흔으로 보이는 깨진 조각과 龜裂이 몇 부재에 약간 있으나 검토 결과 각 부재는 完存하여 완전한 복원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조사내용은 곧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어 12월20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제18차 회

의에서 禪林院址의 遺物 4점을 보물로 지정함과 동시에 陳田寺址 三層石塔은 국보로, 陳田寺址 浮屠는 보물로 지정하여 시급히 복원 보호책을 세울 것을 결의하였었다. 그러나 당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복원 작업이 바로 시작되지 못하고 1967年 12월에 이르러 계획이 진행되어서 석탑은 전면 해체하여 복원토록 할 것이고, 부도는 무너져 내린 부재를 수습하여 원래 위치에 복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3) 拙稿 : 「襄陽 禪林院址에 對하여」 上揭書 第七卷 第六號 通卷 第七十一(1966年 6月) 參照.

4) 拙稿 : 「襄陽 陳田寺址 石塔과 浮屠調査」 上揭書 第六卷 第十二號 通卷 第六十五(1965年 12月) 뉴스欄 參照.

### 3. 石造物の 復原

필자는 12월 8일 현지에 도착하여 복원작업의 지도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다음날인 12월 9일 都進建設株式會社(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 144의 1, 專務 노인기)와 양양 교육청(교육장 金鍾極, 관리과장 金덕준, 施設係長 金윤호, 經理係長 吳윤덕 諸氏 立會) 사이에 복원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당시 평균 기온이 영하 13도(8일 - 13.5도, 9일 - 12.5도, 10일 - 13.0도)이어서 건설회사측에서 “이러한 추위 속에서는 도저히 천여년 묵은 花崗岩 石塔을 다루어 고적을 수리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므로 그 다음해 봄을 기다려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복원 공사를 보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곧 서울로 돌아와 당국에 현지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듬해로 복원공사를 이월시키도록 하였다.

1968년 4월 하순 전년도에 계획했던 두 유물의 복원작업이 시작되었다. 작업에 종사하는 일행은 20일 현지로 출발시켜 작업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필자는 26일 정오 현지에 도착하였다.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먼저 三層石塔을 해체하였는데 6시 30분 初層屋蓋石까지를 해체하였고 나머지 기단부는 다음날 완료하였다. 初層塔身 상면 중앙에는 정사각형의 舍利孔이 施孔되었으나 舍利裝置는 이미 盜取되어 비었는데 바닥에서 綠色 구슬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틀 간에 걸친 해체 작업중 下層基壇部를 埋沒시켰던 笠石 속에서 上層基壇 북쪽의 1枚 礎石이 발견되었고 또한 拜禮石을 收拾할 수 있었다. 한편 基礎部의 정지 작업으로 인하여 주위 臺地를 확장 정리하던 중에 露盤石과 8角佛座 中臺石이 發見되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이렇게하여 떨어져 나갔던 석탑의 각 부재가 露盤部까지 수습되어서 5월 3일에는 완전한 형태로 三層石塔이 복원되었으며 拜禮石까지도 남쪽 원래 위치에 배치할 수 있었다.

石造浮屠 공사는 상기 석탑의 기초부를 정리하는 동안 진행하여 무너져내려 흩어진 각 부재를 수습하면서 기단부의 원래 위치를 찾아 그곳에 복원하였다. 이 복원 작업도 5월 3일에 완료되었는데 浮屠 塔身 괴임의 상면 중앙에 시공된 정사각형의 舍利孔이 조사되었고, 1枚石의 拜禮石도 발견되어 남쪽 원래 위치에 배치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屋蓋石 위에 놓인 寶珠이다. 이것은 당시 里長이었던 秋鍾三氏에 의하여 수습된 것인데 氏의 말에 의하면 수년전 계곡에서 발견되어 보관하고 있었다 한다.

위와 같이 三層石塔과 石造浮屠의 조사경위 및 복원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여기서 정리한다면 1965년 3월 처음으로 이곳을 조사한 때부터 완전히 복원된 1968

년 5월까지 3년이 소요되었고 방치되었던 두 유물이 이로써 건전하게 보존되어 학계에 소개된 셈이다.

### Ⅲ. 陳田寺의 事蹟

上述한 바와 같이 陳田寺는 朝鮮時代 전반기인 16세기경에는 이미 폐사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절터 일대의 경작지에서는 新羅와 高麗의 기와조각이나 高麗時代의 靑磁片만이 발견될 뿐 朝鮮時代의 기와 등 유물을 당시까지는 전혀 수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鮮代의 문헌이나 유적에서는 陳田寺의 사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좀더 上代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祖堂集<sup>5)</sup> 卷 第17 4章에 「雪岳陳田寺元寂禪師嗣西堂在溟州師諱道義俗姓王氏北漢郡人未妊之前其父見白虹……因瑞出家法號明寂以建中五年歲次甲子隨使韓粲號金讓恭過海入唐直往臺山……」이란 記錄이 있다. 또한 京北 聞慶郡 鳳巖寺에 있는 智證大師寂照塔碑<sup>6)</sup> 文中에 「……泊長慶初有僧道義□□□□西泛睹西堂之奧智光侔智藏而還智始語玄契者縛猿心護奔北之短矜鷓翼詭圖南之高既醉於誦言競嗤爲魔語是用韜光廡下歛迹壺中罷思東海東終遁北山豈太易之無悶中庸之不悔者……」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全南 長興郡 寶林寺의 普照禪師彰聖塔碑<sup>7)</sup> 文中에 「……初道儀大師者受心印於西堂後歸我國說其禪理時人雅尙經教與習觀存神之法未臻其無爲任運之宗以爲虛誕不之崇重有若達摩不遇梁武也由是知時未集隱於山林付法於廉居禪師居雪山億聖寺傳祖以闢師教我禪師往而事焉淨修一心求出三界以命非命以軀非軀禪師察志氣……」이라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陳田寺는 우선 道義와 깊은 연고가 있음을 알 수 있으니……더욱이 新羅 九山禪門 중의 하나인 迦智山門(迦智山 寶林寺)의 開山祖라 일컫는 道義가 오랫동안

5) 『曉城 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附錄 所收(1965年 5月刊)

6) 『朝鮮金石總覽』上 89쪽, 朝鮮禪教史(忽滑谷快天著 1930年 9月刊) 85쪽. 參照.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는 現在 慶北 聞慶郡 加恩面 院北里 鳳巖寺境內에 寶物 第138號로 指定保存되고 있다.

7) 『朝鮮金石總覽』上 62쪽, 朝鮮禪教史(同上) 86쪽. 參照. 寶林寺 普照禪師彰聖塔碑는 現在 全南 長興郡 鳳德里 寶林寺境內에 寶物 第158號로 指定保存되고 있다.

동안 이곳에 은거하여 不出山門하였다. 그 뒤 廉居和尚이나 普照禪師같은 高僧들이 이 陳田寺에서 師資相承하였다는 점에서 이 寺刹이 지니는 意義가 크다 하겠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道義가 入唐한 것이 建中 5年 甲子 즉 新羅 宣德王 5년(784 A.D.)이고 귀국한 것이 長慶初 卽 長慶元年, 憲德王 13년(821 A.D.)으로 在唐 37년간이라는 것이며 그후 陳田寺에 은거하였다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사찰 창건의 하한은 늦어도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엽으로 추정되겠다.

한편 高麗時代에 이르러서의 사적을 살펴보면 一然禪師가 14歲 때에 이곳 雪岳山 陳田寺에서 剃髮 得度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卽 高麗國義興花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sup>8)</sup> 文中에 「…泰和丙寅六月辛酉誕焉生而俊邁儀表端嚴豐準方口牛行虎視小有出塵志家甫九歲往依海陽無量寺始就學而聰警絕倫有時危坐盡夕人異之興定己卯就陳田長老 大雄剃度受具於是遊歷禪肆聲價籍甚時輩推爲九山四選之首…」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一然禪師의 初年期를 알 수 있으니 高麗 第21대 熙宗 2年 丙寅6월(1206 A.D.)에 출생하여 9세 때 海陽 無量寺에 寄託되어 취학하게 되었다. 14세 때에 陳田長老 大雄으로부터 剃度具를 受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니, 羅代에 이미 道義에 의하여 禪刹로 이름난 이곳에서 一然이 剃度受具하였음은 곧 一然禪師가 禪門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迦智山 寶林寺의 開祖인 道義의 법통을 바로 陳田寺에서 傳燈하게 되어 道義의 流派가 迦智山門으로 불리워짐에서 一然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三國遺事 開卷初頭に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沖照大禪師一然撰」에 보이듯이 「迦智山下」라 하였으며 또 그의 碑銘에도 「迦智山下」라 한 것이다. 여하튼 一然禪師때까지도 陳田寺는 禪宗 大刹로 依舊하였음은 틀림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筆者는 陳田寺의 사적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해 보겠다.

첫째 陳田寺는 統一新羅時代 즉 8세기말에는 創建되어 있어서 道義가 唐으로부터 귀국한 憲德王 13년(821 A.D.)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法燈은 高麗 一然禪師 때를 거쳐 麗末鮮初까지는 끊기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로 陳田寺는 禪刹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九山禪門에 앞섰던 근본 대도량이었다는 것이

8) 慶北 軍威郡 古老面 華水洞 麟角寺境內에 「義興麟角寺普覺國尊靜照塔碑」가 遺存하나 大破되어 缺落된 碑文이 많다. 그러나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五臺山 月精寺藏 寫本이 紹介되어 剝落된 部分을 補充하고 있다. 『朝鮮金石總覽』上 470쪽. 李能和著 朝鮮佛教通史 下編 359쪽. 參照.

다. 新羅時代에 禪宗을 크게 일으키려던 道義가 住錫한 곳이 여기며, 또 一然禪師가 剃度한 禪門이 이곳일진대 어찌 근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陳田寺는 8세기부터 14, 5세기까지 장구하게 禪宗의 사찰로 法통을 傳燈하였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다.

이러한 事蹟의 내용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유적 유물의 조성과 연대추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바 앞으로 또 다른 사적이 발견 검토되어 더욱 더 많고 확실한 내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IV. 禪宗初祖 道義國師

신라에서는 下代인 9세기 전반부터 禪사상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道義國師가 중국 唐나라로부터 귀국한 憲德王 13년(821)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道義國師는 우리 나라 역사상 禪宗의 初祖로 崇仰하고 있는 것이다. 道義國師에 관한 사료는 「祖堂集」 卷17의 道義傳과 「禪門寶藏錄」에 전하는 智遠僧統과 道義國師와의 문답이 있고 이밖에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 등이 전하고 있으며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陳田寺址의 道義國師浮屠(陳田寺址浮屠, 보물 제439호) 바로 서쪽 옆에 석비가 건립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그 터에 판축한 지대와 석비의 螭首石 만이 남아있을뿐 碑身은 물론 碑文조차 알 수 없다.

「祖堂集」 가운데 道義傳에는 國師의 출생과 출가에 얽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雪岳山 陳田寺 元寂禪師의 諱는 道義요, 俗姓은 王씨로 北漢郡 사람이다. 잉태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흰 무지개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어머니는 어떤 스님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자 이상한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였다. 부모는 깜짝 놀라서 「이러한 상서로움을 보면 반드시 성스러운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의논하였다. 반달이 지나 태기가 있음을 알았는데 39개월 만에야 태어났다. 태어나던 날 아침에 홀연히 이상한 스님이 錫杖을 잡고 문 앞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 낳은 아기의 태를 강가의 언덕에 두어 두시오」라고 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스님의 말에 따라

태를 갖다 묻으니 큰사슴들이 와서 지키는데 해가 바뀌어도 떠나지를 앓았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헤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서로 인하여 출가하였기에 法號를 明寂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道義國師는 태어날때부터 비범하였음을 할 수 있다

道義國師는 신라 宣德王 5년(784)에 사신을 따라서 唐나라로 갔다. 그리고 곧바로 五臺山을 순례한 뒤에 廣府의 寶壇寺에서 처음으로 具足戒를 받고, 이어서 曹溪山 六祖 慧能의 祖師堂에 참배하였다. 이때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렸고 예배를 세번 마치자 역시 문이 저절로 닫혔다고 한다. 다음으로 江西 洪州의 開元寺로 가서 西堂智藏大師에게 머리 숙여 스승으로 모시면서 의문을 풀고 막힌 체증을 푸니 대사는 마치 돌 틈에서 玉을 고르듯 하고 조개 껍질에서 眞珠를 주워낸듯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라”그리고는 이름을 道義로 고쳐주었다고 한다.

이곳의 西堂智藏大師(738~817)는 馬祖門下를 대표하는 수제자였는데 신라의 入唐求法僧으로는 道義를 비롯한 慧徹·洪陟 등이 智藏大師의 心印을 받아서 신라에 전파하였다. 이 중에서도 道義가 西堂대사의 촉망받는 제1의 제자였음은 眞空大師碑文에서도 알 수 있다. 즉, 道義國師보다 먼저 恒秀禪師가 海西에 도달하여 유학하고 西堂智藏大師에게 묻기를 “西堂의 법이 만약 東夷로 흘러간다면 어떠한 아름다운 징조가 있는지 그 妙識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智藏大師가 대답하기를 “불교의 교의가 쑥대밭 속에 깊이 묻혀있는 것을 찾아내고(道) 불은 蓬艾의 꽃봉오리에서 왕성하게 불타니(義) 靑丘의 道義선사가 그 기운을 이어받아 禪法을 전하리니 그로부터 萬叢이 스스로 和暢하리라”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도 道義國師의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국사는 西堂의 문하에서 물러난 뒤에 頭陀의 길을 떠나 百丈山 懷海和尚에게로 가서 예를 갖추기를 마치 西堂화상을 대하듯 하니 百丈은 “강서의 禪脈이 모두 다 東國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道義國師가 唐나라 西堂에게서 心印을 전수 받고 신라로 귀국한 해인 憲德王 13년경 신라 불교계는 敎學이 크게 융성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禪法을 퍼려는 道義國師의 노력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

敎宗에 심취한 당시의 승려들은 선법을 魔語라고 비방할 정도였다. 헌강왕 10년(884)에 金穎이 지은 전라남도 長興郡의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經의 가르침과 觀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법만을 숭상했던 승려들은 無爲任運의 宗에 모이지 않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 높여 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마치 達摩祖師가 梁나라의 武帝를 만났음에도 뜻이 통하지 못한 것과 같았다.”

『禪門寶藏錄』에 전하는 智遠僧統과 道義國師와의 문답에서는 智遠僧統이 道義國師에게 승복했다고 하였으나 많은 승려들은 道義선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던 것이다. 이때 道義國師는 禪法을 펼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라의 王城(慶州)을 떠나 설악산 진전사에 은둔하면서 선법을 廉居禪師에게 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道義선사를 선종의 初祖라 일컫게 되었으니 序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普照禪師彰聖塔碑(보물 제158호)의 비문에 『達摩爲唐第一祖 我國則以 儀大師爲第一祖 居禪死爲第二祖 我師第三祖』라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선종의 宗祖요, 조계종의 宗祖이며 신라사회에 새로운 禪風을 크게 일으킨 祖師이니 道義國師의 역사적 위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 V. 遺蹟과 遺物

陳田寺址의 유적과 유물은 크게 보아 절터와 三層石塔 및 石造浮屠를 말할 수 있겠으나, 복원 공사 중 발견된 佛座의 中臺石이나 유물에 대한 전설도 현지에서 傳聞 그대로를 기록하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 1. 現地에서의 傳聞

수차에 걸친 현지 답사로 이곳 주민들과 동숙하면서 자주 만나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 이곳 陳田寺址에 관한 많은 口傳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마을은 본래 秋氏 一家의 本鄉이라는 바 대대로 알려진 내용을 말하는 秋澄燁(74歲) 秋震燁(53歲) 秋鍾三(31歲)氏를 비롯 金鍾極(教育長 64歲) 崔植大(35歲)諸氏의 말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당시의 인물들과 나이를 적었음).

- ① 日帝時(秋震燁氏가 25歲였다고 함) 어느 해 가을철에(陰九月頃이라함) 日人 2명이 마을에 와서 당시 區長이었던 秋秉河(六·二五事變時 死亡하였다 함)氏를 강제 동원시켜 석탑 주위에 외부 사람의 출입을 엄금시키고, 지렛대로 屋蓋石을 들어 들을 받혀 놓고 舍利孔 內에서 다량의 보물을 盜取하였다는 바 그 형태나 종류는 당시 日人들만의 비밀 소행이었으므로 쏠혀 알 수 없다고 한다.
- ② 石造浮屠에서도 같은 날에 같은 수법으로 보물을 盜取하였는데, 탑신부에서 기단 부에 이르기까지 보물을 탐색하느라고 지렛대로 완전히 倒壞시켰다고 한다.9)
- ③ 當時 秋區長이 日人들에게 이곳 절 이름이 무엇이나고 문의를 하였는데, 그들은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아직도 동민들은 그저 「진전사터」라고만 불리어지고 있을 뿐 확실한 내역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한다.
- ④ 雪岳山에서 시원하는 계류가 바로 이 절터 남쪽 앞을 흐르고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을 「女鬼沼(소)」라 부르는데, 이 사찰이 망할 때(朝鮮時代라고 함)「인경」(鍾일 것임)과 많은 불상을 이 女鬼沼에 넣고 승려들이 떠나갔다고 전한다.
- ⑤ 이웃 동리인 間谷里 居住 崔植大氏말에 의하면 氏의 삼촌되는 崔鐵洙氏가 1967年 5月頃 女鬼沼 근처에서 佛手片을 습득하였다고 하는데, 삼촌 崔氏가 12월에 死亡하였으므로 오늘날 현품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한다.
- ⑥ 석탑 동쪽 50m 쯤 되는 산록에 속칭 「도둑굴」이 있었던 바 현재는 거대한 암석이 덮혀서 동굴의 형태를 짐작할 수 없다. 옛부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동리에 日人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동굴 안에는 금불상과 청동검 그리고 鐵刀 등을 습득하여 秋琮燁氏가 소장했던 것을 秋震燁氏가 목격하였다는데, 그 후 금불상은 행방불명이 되고 鐵刀는 秋洪燁氏 집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얼마 후에 역시 그 행방도 묘연해졌다고 한다.

위의 여러 가지 傳聞을 종합해보면 석탑이나 浮屠의 舍利裝嚴은 日本人들이 훔쳐갔음이 확실하고 石造浮屠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日人들의 소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鐵製佛手나 금불상, 청동검, 철도 등 여러 유물에 관한 전설은 모두 이곳 陳田寺에 소장되었던 유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도 이곳에 대한 주목을 계속한다면 或問의 유물이 수습될 가능성도 더 한층 짙게 될 것이다.

9)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도 完全한 形態로 記錄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이때 日人들에 依하여 倒壞되었다는 洞民들의 證言이 틀림없는 것 같다.

## 2. 寺址와 三層石塔

屯田里 서북편에 솟은 冠山 남쪽의 경작지 한가운데 三層石塔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772평(屯田里 100番地 秋鍾三氏 所有)의 이 경작지가 陳田寺 본당지로 추정된다. 남쪽에는 동에서 서로 길이 50m 높이 3~4m의 석축지가 있는데 이를 볼 때 진전사는 남향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석탑 正北에는 법당지가 있으나 현재는 개인의 분묘가 있어서 주초석 등의 시굴도 불가능하다. 경작지 일대에는 羅代의 蓮華紋막새를 비롯 기와편이 많이 흩어져있다. 석축지 앞의 계류는 동해로 흐르고 있으며 심산유곡이 근원임으로 향시 수량이 많고 水石이 清雅하여 동리 안에도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동리입구인 큰길로부터 이곳까지 약 8km가 되는데 계류를 따라 계속 올라오는 길이어서 이 절터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멀리 동해가 굽어보이는 佳景無比한 眺望이 절터 앞의 계류와 잘 어울려 마치 경주 동해안의 感恩寺址를 연상케 한다(사진 4).<sup>10)</sup>



사진 4. 陳田寺址에서 멀리 東海가 굽어보임

지대석 위에 기단부가 놓여있는데 하층기단은 4枚의 장대석으로 결구된 대석 위에 면석을 놓았다(사진 5).

伽藍의 배치는 지표에 노출된 부재가 없고 또 일체의 시굴작업이 없었으므로 여러 유적을 파악할 수 없음은 유감된 일이다.

삼층석탑은 신라식 일반형으로 2층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相輪部는 露盤石까지 남아있고 그 이상은 결실되었다. 8枚의 장대석으로 구성된

10) 感恩寺址의 주위 諸條件을 볼 때 앞에는 大鍾川이 東海로 흐르고 있으며 東海가 보이는 南向 寺刹이 꼭 이 곳 陳田寺址의 環境과 같다.



사진 5. 陳田寺址 三層石塔 解體作業 進行광경

데, 手印은 合掌을 하거나 혹은 천의를 잡고 있는 등 각각 다른 形態이다. 이 조각은 각 天人의 상호가 원만하고 미려하며 유려한 천의자락이 잘 어울려 당대의 빼어난 작품이라 하겠다(사진 6).

甲石은 4枚石으로 결구되었는데 下面에 폭 1cm 깊이 0.7cm의 낙수 홈을 陰刻하여 세밀한 의장을 보이고 있다. 下甲石 위에는 4분원의 몰딩과 角形받침으로 上層基壇을 받고 있다. 上基面石은 한 면 2枚式 모두 8枚石으로 조립되었는데 兩隅柱가 刻出되었고 중앙 一撐柱로 兩分하여 8部神衆을 조각하였다. 이



사진 6. 石塔 下層基壇面石의 天人像 (西面)

들 8部衆은 모두 雲紋上에 安坐하여, 거의 武器를 갖고 있는데 남면의 1軀는 千手相을 하고 合掌하였으며, 북면 1軀는 合掌하였고 동면 1軀는 瓔珞을 잡고 있다.

각 면의 조각은 「레이이프」가 强하여 입체적이며 웅건한 조각 수법을 보이고 있다. 上甲石은 3枚石으로 결구되었는데, 하면에 폭 3.5cm 깊이 0.5cm의 落水 홈이 음각되었고 副緣이 마련되었다. 上面에는 四分圓의 몰딩과 角形 1段의 받침을 조출하여 塔신을 받고 있는데 塔신의 각 부재는 1石式이다(사진 7).



사진 7. 石塔 上層基壇面石의 八部神象像(西面)

팔에 걸쳐 무릎을 덮었고, 오른손은 臍前에 들어 拇指를 모은 듯 하며, 왼손은 胸前 가까이서 藥盒으로 보이는 持物이 있는 것으로 보아 尊名은 藥師如來일 것이다. 서면은 서방 극락세계의 無量壽佛인 阿彌陀佛로서 通肩法衣가 양팔에 걸쳐 무릎을 덮었으나, 두 발은 露出되었고 手印은 兩手를 胸前에 들어 오른쪽은 外掌하여 藥指와 拇指를 잡고 中指를 꼬부리고 있으며, 왼쪽 손은 中指와 拇指를 잡고 藥指를 꼬부려 內掌하였다. 남면 여래상의 법의는 右肩偏袒이며 오른쪽 손은 무릎 위에 놓고, 왼쪽 손은 어깨까지 들어 外掌하여 中指와 拇指를 잡았고 藥指도 꼬부리고 있다. 북면의 坐像도 右肩偏袒 하였으며 手印은 오른손을 胸前에 들고 왼손은 臍下에서 內掌하고 있다(사진 8).

탑신부의 각층 塔身石은 兩隅柱가 정연히 刻出되었는데, 初層에는 4方に 坐佛이 조각되었다. 이것은 곧 4方佛을 배치한 것으로써 4軀가 모두 仰蓮座上에 걸가부좌하고 圓形의 2重頭身光을 구비하였으며 螺髮에 肉髻가 큼직한 如來像인 바, 그 尊容은 각각 다르다. 즉 동면은 通肩法衣가 양



사진 8. 石塔 初層塔身의 四方佛(西面)

각 좌상의 仰蓮座는 單葉 5瓣인데 各 瓣內에는 큼직한 子房 周邊에 5葉子의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원만한 相好와 목에 둘러진 三道가 어깨 위까지 길게 느리워진 두 귀와



사진 9. 石塔 初層塔身石 上面中央의 舍利孔

잘 어울려서 위엄과 자비가 동시에 넘친다. 그 풍려한 尊容과 衣紋의 彫刻手法이 유려함이 비할 데 없다 할 것이다. 初層 塔身 상면 중앙에는 한 길이가 32.5cm, 깊이 11.5cm의 正四角形 舍利孔이 施孔되어 있었다(사진 9).

屋蓋石은 각층 5段式의 屋蓋받침이 정연하고 상면에 刻出한 2段式의 각형 괴

임으로써 각기 그 위의 塔身石을 받고 있다. 落水面이 평평하고 轉角의 반전도 경쾌하다. 추녀에는 落水홈이 陰刻되었고 4隅 轉角兩面에는 풍경이 부착되었던 小圓孔이 1孔式 보인다. 이 석탑 전체의 균형 잡힘과 경쾌한 옥개석 및 기단부, 初層塔身의 수려한 여러 像의 彫飾에 각층 轉角에서 덩그렁대는 풍경소리까지 울렸을 신라대 당시에는 비할 데 없는 장관이었으리라 믿는다. 三層屋蓋石 頂面에는 중앙에 지름 10cm, 깊이 10cm의 檨柱圓孔이 있는데, 그 바닥은 약간 좁아들었다(지름 7.5cm)(사진 10).

相輪部는 露盤石뿐이고 그 위 부재는 결실되었다. 露盤은 2枚石으로 구성되었고 중앙에는 지름 11cm의 檨柱圓孔이 뚫렸었는데 그 圓孔의 크기가 고르지 않고 위 지름은 11cm이나 가운데 지름은 9cm, 아래지



사진 10. 陳田寺址 三層石塔

름은 13cm이다. 이것은 아마도 檨柱를 堅固히 세우기 위한 意匠에서의 施孔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리고 상면 4隅에 지름 1.3cm, 깊이 2.2cm의 小圓孔이 있음은 檨柱상부에서 느리워진 장식적인 鐵鑽을 부착 시켰던 小孔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相輪部에서 鐵鑽을 걸어놓은 예는 江原道 旌善郡 東面 古汗里 咸白山下에 소재한 淨巖寺 7층모전석탑<sup>11)</sup>이나 忠淸北道 報恩郡 俗離面 舍乃里 俗離山下에 위치한 法住寺 捌相殿<sup>12)</sup>에서 볼 수 있는 바라 하겠다.

석탑 정남측 68cm되는 위치에 1枚石으로 된 拜禮石이 놓였는데 상부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으나 옆으로는 사방에 眼象을 새겼다. 좌우측에는 1區式이고 전후 면은 2區式인데 그 형태는 전형적인 신라 양식을 갖추고 있다.

露盤 위에 圓錐形(높이 20cm, 밑지름 36cm, 윗지름 12cm)의 1石이 놓였는데, 잡석은 아닌 것 같으며 “본래부터 탑 위에 놓였었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참조하여 그대로 塔頂에 두었다.

상·하층 기단부의 면석이나 甲石의 결구조립에 있어서 각 면석이 네 귀퉁이나 撐柱에서 접속되는 부분에 홈을 파서 밀착되게 治石한 점이던가 특히 몇 枚로 구성된 상·하甲石의 각 석재가 결구 되는 곳에는 양측을 연결하는 H形의 홈을 깊고 크게 파서 쇠못을 박아 고정시켰는데, 이는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결구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 석탑의 건립은 기단부와 탑신부의 양식으로 보아 물론 통일신라시대이나 하층 기단면석의 天人像과 상층 기단면석의 八部神衆像, 그리고 初層 塔身의 四方佛 등 균형이 잡히고 원만하고 수려한 조각수법은 9세기보다는 앞서는, 즉 8세기 후반기로서 이곳 陳田寺 창건의 하한을 8세기 후반으로 짐작하고 있는 바와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삼층석탑의 조성연대도 8세기 후엽으로 추정하는 바이다.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單位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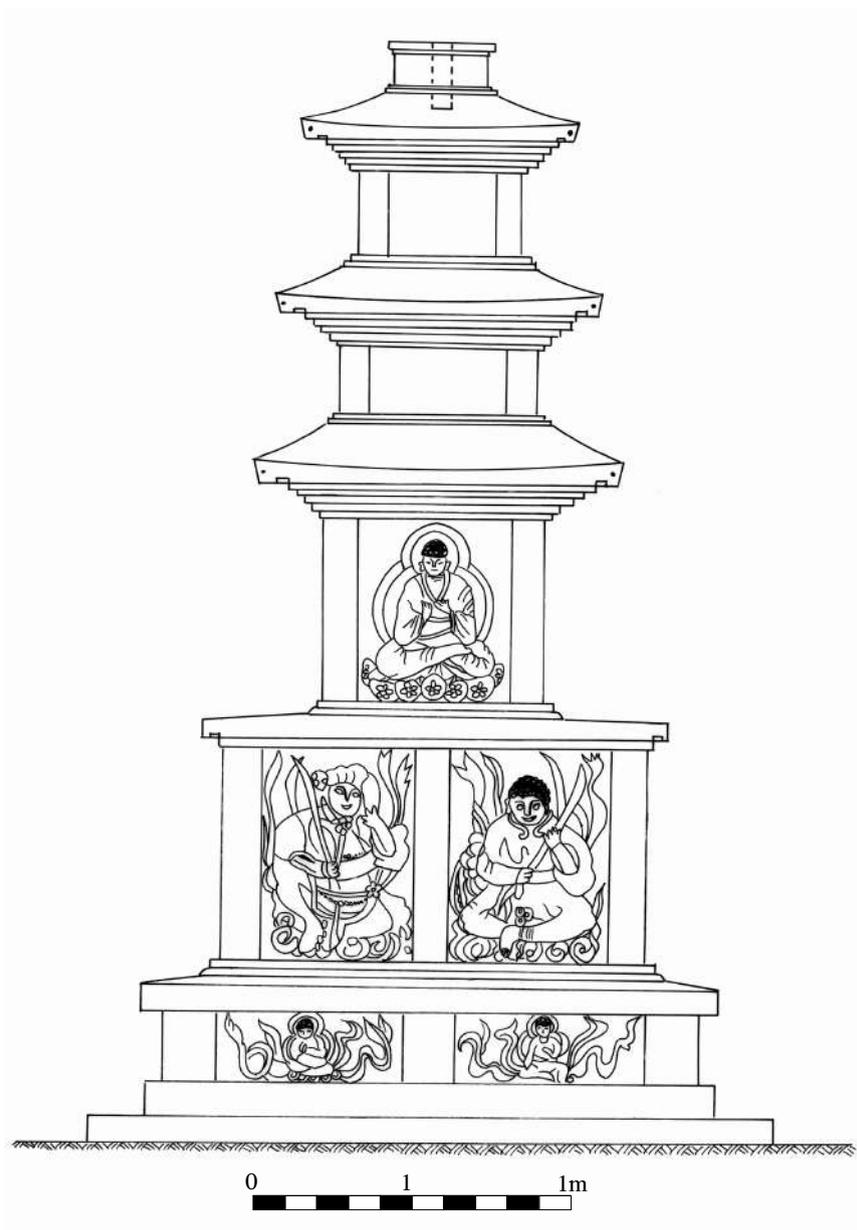
현전고 504, 기단부 높이 200, 地臺石 한변 길이 291, 높이 11, 하층기단면석 높이 31.5, 폭 232.5, 하층기단甲石 길이 244, 두께 22, 상층기단면석 높이 93, 폭 178, 상층기단甲石 길이 197, 두께 20.8이다.

初層 塔身 높이 80, 폭 91.5, 隔柱幅 14.5, 二層 塔身 높이 29.7, 폭 81.8, 隔柱幅 11.8, 三層 塔身 높이 27.7, 폭 68, 隔柱幅 10.8, 露盤높이 18.2, 위면 한변길이 44.5, 아래면 한변길이 37.3, 初層 屋蓋石추녀 한변길이 150.6, 二層 屋蓋石추녀 한변길이 133.5, 三層 屋蓋

11) 拙稿 : 『淨巖寺水瑪瑙塔의 調査』 『考古美術』 第一卷 第三號(1960年 10月) 參照

12) 『文化財大觀 國寶篇』 (文教部 文化財管理局刊 1967年 12月) 66쪽. 參照

石추녀 한변길이 112.5, 배례석 높이 18, 상면 90×38.5, 전후면眼象 26.5×8, 좌우 옆면  
眼象 26.3×8이다(도면 2).



도면 2. 陳田寺址 三層石塔 立面實測復原圖(西面)

### 3. 道義國師浮屠

冠山の 한 支脈이 서쪽으로 뻗어 서북쪽에 솟은 「화채봉」 下麓에 연결되었는데, 그 가운데 암자터가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화채봉」 가운데에 암자터(동네사람들은 鶴水庵이라고 함)가 있는데 여기는 1945년 8·15해방 후 폐사되었다고 한다. 『朝鮮古蹟調査資料』에 보이는<sup>13)</sup> 「鶴巢庵址」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石造浮屠는 冠山支脈의 한 가운데 구릉에 위치하였는 바 여기서 동쪽으로는 眼下에 陳田寺址와 三層石塔이 있고 멀리 동해가 굽어보인다. 이 浮屠의 동남쪽은 斷崖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쪽에는 넓은 경작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도 높이 3~4m의 장대한 石築址가 뚜렷하고 기와조각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곧 암자 건물지로 지목할 수 있다. 앞서 말한 「陳田」銘의 기와조각(I. 序論 參照)도 바로 이곳 경작지에서 습득<sup>14)</sup>한 것임을 밝혀둔다.

浮屠는 基壇부와 塔心부로 이루어졌는데 신라 일반형 석탑의 통식인 사각형 이층 基壇 위에 仰蓮괴임 1石을 놓고, 8각 心석과 옥개석을 안치한 이례적인 양식으로서 이른바 慶州 吐舍山 石窟庵 三層石塔의 유례와도 통하는 신라시대의 특수 형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괴되어 전면적인 복원 공사가 필요하여 완전히 복원을 하게 되었다(사진 11, 12).



사진 11. 浮屠의 復原作業 進行光景(1)

13) 『朝鮮古蹟調査資料』 542쪽. 18. 降峴面 屯田里 庵址에 「屯田里 部落ノ 西北 約一里 松岩山中腹ニアリ 鶴巢庵址 瓦片 散在 スルノミ」라 되어있다.

14) 1965年 12月 이곳을 再調했을 때 蒐集한 것인바 현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所藏하고 있다.



사진 12. 浮屠 復原作業 進行광경(2)

다. 하층기단은 면석과 그 대석이 같은 돌로서 모두 4枚石으로 조성되었으며 각 면석에는 兩隅柱와 중앙 1撐柱가 정연히 양각되었다. 4枚石으로 결구된 하층 기단갑석은 상면에 4分圓의 몰딩과 각형 1단의 받침으로 상층 기단을 받고 있는바 上基面石에 兩隅柱와 중앙 1撐柱가 조각되었음은 下層 基壇面石과 같으나 上基面石은 6枚로 조립하였다.(동·남은 1枚式이고 서·북은 2枚式이다.) 상갑석은 2매석으로 형성되었는데 아래 면에는 부연이 彫出 되었고 상면에 8각으로 4分圓의 몰딩과 낮은 각형의 반전형 괴임을 彫出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높은 각형 받침을 刻出하여 도합 삼단으로서 연화괴임 1枚石을 받고 있다.

이 蓮華臺石은 단엽 16瓣의 仰蓮座이다. 각 蓮瓣內에는 圖形의 子房, 주변에 5엽의 花瓣이 조식되어 있어 더욱 화사한 연화좌를 이루고 있다. 이 蓮華臺石은 하면은 8각이 뚜렷치 않으나 측면부터는 완전한 8각이어서 8변과 8각에 1瓣式의 仰蓮紋을 조각하여 모두 16瓣인 것이다 (사진 13).



사진 13. 浮屠塔身의 괴임石下面 8角귀퉁이 仰蓮紋

상면에는 낮은 각형 1단 위에 높은 4分圓의 물딩과 각형 1단을 마련하여 8각 탑신을 받고 있는데 그 상면 중앙에는 정사각형의 사리공이 있어 주목되었다. 이 숭리孔은 정사각형은 아니나(26.5cm×29cm 심 9.5cm) 口緣은 뚜렷한 사각형으로서 周緣에 폭 1cm, 깊이 0.5cm의 홈이 음각되었고 저면은 안으로 굽었다. 蓮華臺석 자체가 두껍지 못한 이유로 숭리孔도 깊지는 못하나 폭은 넓은 편이라 하겠다. 요컨대 蓮華座를 別石으로 안치한 것은 이 숭리孔을 안치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석조 浮屠에서 이러한 장치를 시설한 유례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서 이 浮屠의 이례적인 형태는 물론이요 舍利奉安法에도 특수한 형식을 보이고 있음에서 더욱 이 石造浮屠가 귀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14. 浮屠 8角塔身石

각되었고 그 안에는 각형 1단괴임이 刻出되어 신석위에 놓여졌다. 落水面이 平簿하고 8각마다의 전각의 반전도 경쾌하여 전형적인 신라식의 屋蓋石이라 하겠다. 屋蓋石 정상에는 상륜부를 받기 위하여 8각으로 1단의 각형 받침을 刻出하였고, 그 주위에는 複葉 8瓣의 伏蓮이 조식되었다. 중앙에는 擦柱가 있어 寶珠石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 擦柱는 사각형의 철제로서(현재 높이 9.5cm, 한변 길이 2cm) 현재 지름 8cm의 圓孔內에 强灰로 고착되어 있다(사진 15).



사진 15. 浮屠 屋蓋石(上面)

8각身石에는 명문이나 조식, 隅柱 等の 표현이 전혀 없고 남측 한 면에만 門扉와 같이 篆額을 마련하였을 뿐이다. 이 篆額은 이중으로 음각 되어 四方額彫 2條만이 뚜렷할 뿐 그 안에는 문고리나 자물쇠 等 아무런 조각도 없다(사진 14).

8각 屋蓋石 아래쪽 추녀에는 깊고 넓직한 落水홈이 음

寶珠는 1석의 蓮峰型으로 圓形인데 아래면 중앙에는 지름이 6.5cm, 깊이 9.5cm의 擦柱圓孔이 施孔 되었고, 下端 옆면에는 단엽 8瓣의 仰蓮이 돌려져서 옥개석 상면의 伏蓮과 잘 어울려 더욱 장엄하다(사진 16).



사진 16. 浮屠上輪部 寶珠石

浮屠에서 50cm 정남측에 1석으로 조성한 배례석이 배치되었다. 이 배례석은 측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으나 상면 중앙에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어 흥미롭다. 큼직한 圓座(지름11.5cm)를 중심 하여 그 주변에 단엽 8瓣이 돌려 졌는데(蓮瓣幅 4.5cm~5.5cm), 그 유려한 조각수법은 신라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배례석 상면 등 각 변의 모(角)를 죽이는 治石法이 또한 주목된다.

이 石造浮屠의 건립은 각부 양식이나 豐麗한 蓮瓣 조각으로 보아 물론 통일신라시대인바 신라시대 일반형 浮屠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 않는 점은 주목되는데, 이 浮屠 조성의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진 17. 道義國師浮屠(陳田寺址浮屠)

즉 기단부의 구조가 新羅대의 일반형 석탑과 같이 정사각형 2층임은 당시 이미 절 안에 전기한 三層石塔이 건립되어 있어서 그 양식을 따랐던 것으로 상·하층 兩隅柱와 중앙 一撐柱까지도 모각하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 그리고 기단부 각 부재의 결구 방법도 동일한 것이다. 身蓋石에 있어서는 羅代의 전형적 浮屠양식인 8각 圓堂型으로 구성하였으며 舍利藏法은 일반형 석탑의 격식을 따라 기단부 위에 봉안하였으니 여기의 8角 蓮華座는 마치 初層 塔身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15)</sup>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도의 건립연대는 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사진 17).

15) 一般型石塔에서의 舍利奉安과 比較했을 때 우선 이곳 陳田寺址 三層石塔만 보더라도 初層塔身に 舍利孔을 施孔하고 있으니, (二, 三層에 施孔한 것도 있으나)浮屠의 경우 이 蓮華座는 舍利를 奉安하기 위한 別石의 施設로 보았을 때 그렇게 比喻 할 수 있을 것이다.

각부의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복원 전체 높이 317, 기단부 높이150, 地臺石 한변 길이 222.5, 높이10, 하층기단면석높이 21.5, 폭 190.3, 하층기단갑석 길이 195, 두께 18.3, 상층기단면석 높이 70.8, 폭 124.5, 상층 기단갑석 길이 148.8, 두께 13.2, 蓮華座지름 83.2, 두께 18.5 塔身 높이 68.5, 한변 길이 31, 篆額 높이 43, 폭 32.5, 塔身지름 74, 屋蓋石 지름 129, 두께 35, 한변 길이 48.5, 寶珠 높이 33, 가운데 지름 36, 아래지름, 20 배례석 높이 17.5, 상면 39.5×66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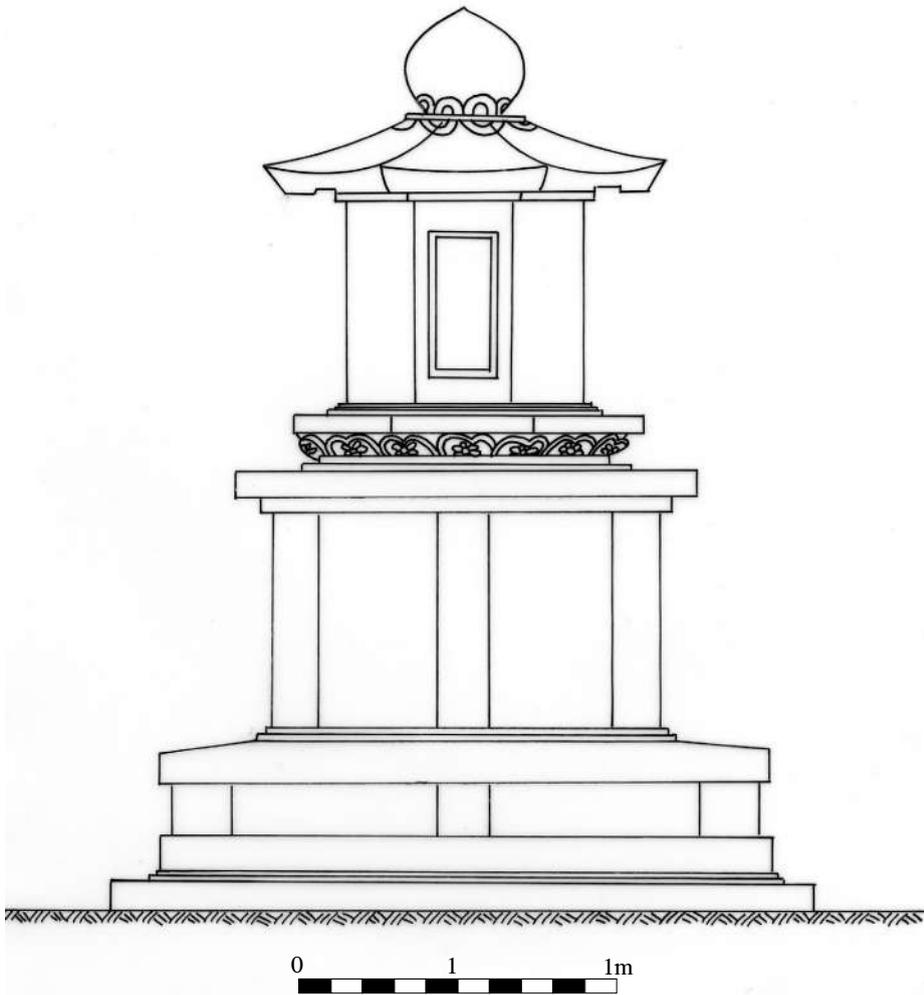


그림 3. 道義國師浮屠(陳田寺址浮屠)立面實測復原圖(南面)

여기에 한가지 부연할 것은 위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이 浮屠의 조성 연대를 9세기 중엽으로 추정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느 대사의 부도일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陳田寺 事蹟<sup>16)</sup>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道義國師가 唐으로부터 귀국한 뒤에, 이곳 陳田寺에 은거하였던 때가 9세기 초반으로부터 이후 중엽 후반기일 것이니 이 浮屠가 道義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닌가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다. 그리하여 이 부도의 역사적 배경과 건조양식 등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신라 崔彦擣가 撰한 毘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文에 의하면 陳田寺에는 道義國師의 靈塔과 眞影이 모셔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眞空大師(855~937)는 진전사에 이르러 道義國師의 影塔에 예배한 뒤 國師의 진영에 追感하며 영원한 제자의 의식을 취하여 기뻐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록만으로도 道義國師의 부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곳 석조부도의 양식을 보았을 때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은 일반형 석탑의 정사각형 평면의 중층기단임을 알 수 있어 석조부도의 시원 양식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탑신부에 있어서 仰蓮괴임대석은 평면 8각이며 그 상면 중심에 큼직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舍利孔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의 탑신석과 옥개석이 또한 8각이다. 이렇듯 8각의 양식은 스님의 영혼을 아미타에 귀의시킨다는 것이었으니 이 석조부도는 모든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곳 진전사에서 일생을 마친 道義國師浮屠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보다 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보물 지정 명칭도 道義國師浮屠로 개칭하고 오직 하나뿐인 우리 나라 석조부도의 시원 양식인 점에서 國寶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시굴당시 부도의 바로 옆에서 石碑가 건립되었던 유적으로 적심석과 강회로 다져진 기초가 발견되었다. 그 밑으로는 굴러 떨어진 石碑의 螭首가 발견 조사되었다.

螭首石은 전체적으로 파손과 마손이 심하나 浮屠碑가 건립되었던 귀중한 증거로 주목된다고 하겠다(사진 18~26참조).

---

16) 이 글의 陳田寺의 事蹟 項을 參照.



사진 18. 浮屠西편의 石碑址 수색작업(1)



사진 19. 浮屠西편의 石碑址 수색작업(2)



사진 20. 浮屠 西便의 石碑址 수색작업(3)



사진 21. 石碑址의 발견



사진 22. 浮屠碑址(기초석재들)



사진 23. 浮屠碑址의 적심석들



사진 24. 浮屠碑의 螭首石발견



사진 25. 石碑螭首石 표면의 撮影



사진 26. 石碑螭首石의 뒤편(파손됨)

#### 4. 佛座 中臺石과 其他 遺物

본론의 조사 경위에서도 말 한 바와 같이 이곳에 남아있는 3층 석탑과 石造浮屠를 복원하는 작업 중에 여러 점의 부재가 발견되었는데 이 中臺石도 그 가운데 한 점으로 여러 개의 장대석과 같이 석탑의 적심석에 매몰된 대지를 확장 정리하던 중에 발견 수습된 것이다.

돌 하나로 된 이 中臺石은 본래 8각이었는데 각 合角部가 파손되어 현재는 거의 圓形에 가깝다. 그리고 측면 각 면의 조각도 많이 마모되었으므로 현 상태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각 면에 兩隅柱를 刻出하고 그 안에 彫像하였는데 현재는 4면만이 희미하고 그 외의 4면은 완전히 파손되었다. 현존 4면은 한 면에는 香爐를 彫刻하고 나머지 3면에는 圓形頭光을 구비한 菩薩坐像을 한 軀式 배치하였는데 香爐面 바로 우측의 보살은 좌측의 향로를 향하여 두 손을 들어 供養하는 形態이고 이 菩薩의 바로 오른쪽 坐像은 正視한 合掌相이며 그 옆은 磨滅이甚하여 圓形頭光만이 희미하다.

이러한 양식의 불좌 中臺石은 통일신라시대 佛座에서 많은 유례를 볼 수 있는 바인데, 특히 이곳과 同郡內的 유물로서는 西面 黃耳里에 소재한 石造毘盧舍那佛坐像<sup>17)</sup> 臺座의 中臺石을 들 수 있겠다.

현재는 中臺石뿐이나 앞으로 上·下臺石 등 다른 부재가 수습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座臺 위에 봉안했던 불상에 대해서도 구명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조성연대는 香爐나 菩薩像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석탑의 건립과 같은 시대로 보아서 8세기 후반으로 추정해도 좋을 것 같다.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單位 : cm)

현재 높이 32, 한변 길이 29~30, 隅柱幅 6, 현재 지름 73, 菩薩坐像 높이 19, 頭光 지름 10, 頭高 6, 무릎 폭 14, 무릎 높이 4, 어깨 폭 9, 胸幅 6이다.

이외에 적심석을 정리하던 중에 長大石 2枚가 발견되었는데(하나는 78cm×51cm, 높이 26cm, 다른 하나는 83cm×59cm, 높이 26cm이다.) 그 治石된 형태로 보아 건물의 기단면석으로 사용되었던 부재로 추정된다.

위의 여러 유물은 현재 삼층석탑의 뒤쪽을 평평히 정리하여 그곳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



사진 27. 1974年度 下寺址 試掘作業

17) 拙稿 : 『襄陽 黃耳里 塔·像』 『考古美術』 第七卷 第十一號 通卷第七十六(1966年 11月) 參照.



사진 28. 上寺址 試掘調査



사진 29. 1976년도 上寺址의 試掘調査全景



사진 30. 上寺址의 石塔址발견

## VI. 結 語

이상 현재까지 수습된 陳田寺址의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陳田寺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道義國師의 행적도 살펴보았다. 처음 답사시에는 석탑과 부도만이 남아 있었으나 3年間に 걸쳐 여러 차례 현지를 왕래하고 끝내는 두 유물을 복원하는 사이에 본론에서 이미 소개한 여러 부재와 더불어 여러 가지 口傳되어 오는 사실까지도 새로이 알게 되었음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표에 나타나 있는 것뿐이지 매몰된 여러 가지의 遺構에 대하여 필자는 본격적인 완전한 발굴을 실시하지 못한 까닭에 무어라 紹介할 수가 없다. 1965년 12월에 재조사를 마치고 그 후 두 유물을 새로운 자료로서 간단히 소개<sup>18)</sup>할 때 지금 경작지 일대를 발굴조사 하여 寺

18) 拙稿：『襄陽 陳田寺址 三層石塔과 石造浮屠』上掲書 第八卷 第六號 通卷第 八十三(1967年 6月) 參照.

刹의 여러 유구를 밝혀서 규모라도 짐작해 보았으면……하는 생각을 해 보았으나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삼층석탑의 正北 法堂址에는 民墓가 있으니 그 주변 지하에 어떠한 유구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며, 한편 石造浮屠가 遺存하니 그에 따르는 塔碑도 있음직한 일인데 아직은 발견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의 조사보고는 차후 충분한 과정을 갖고 좀더 상세하며 완전한 연구가 있는 연후에 소개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拙稿를 내 놓으려고 하니 이렇듯 미흡한 조사에 대하여 필자 자신도 펍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 보고가 앞으로 이곳 陳田禪院의 보다 더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案內的인 역할을 맡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그리고 陳田寺와 道義國師의 사적에 관해서도 앞으로 이곳의 발굴작업과 더불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或間의 문헌 등 자료가 수집된다면 더욱 더 광범위하고 정확한 사적을 정리할 수 있겠다. 처음부터 이곳의 조사를 맡았던 필자로서 그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끝으로 이곳의 조사와 陳田寺 사적의 정리에 많은 敎示를 주신 黃壽永, 閔永珪 兩教授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시 현지 답사시 여러 도움말과 여러 가지 便宜를 圖謀해 주신 申榮勳, 李宗碩 兩氏와 現地 教育廳의 金鍾極 教育長을 비롯하여 金덕준 金인영 金윤호 吳윤덕 諸氏 그리고 당시 里長이었던 秋鍾三氏께 深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本稿의 草稿는 1968年 5월에 建國大學校에서 열린 1968年度 韓國大學博物館協會 總會에서 發表한 內容을 整理한 것이며 여기의 사진과 실측 그리고 복원도면 一切는 필자의 제작임을 밝힌다. 그리고 本稿는 草稿의 內容에 그 동안 밝혀진 몇 가지 점을 더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 最近 陳田寺址 發掘調査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池 賢 柄 \*

## 目 次

I. 머리말	IV. 調査內容
II. 遺蹟의 位置 및 調査經緯	V. 陳田寺址에 대한 檢討
III. 陳田寺址 沿革	VI. 맺는말

## I. 머리말

陳田寺址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설악산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사찰터로, 현재 이곳에는 진전사 삼층석탑(국보 제 122호)과 도의선사 부도(보물 제 439호)<sup>1)</sup>가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 江原文化財研究所

1) 도의선사 부도에 대한 기록은 경북 풍기읍 비로사 眞空大師 碑文에서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所以奉遵嚴命 得到陳田 所喜 親踏遺墟 禮其靈塔 追感眞師之影 永申弟子之儀…(…그 후 엄명을 받들고 진전사에 도착하니 기꺼운 바는 직접 도의국사의 유허를 답사하여 그 영탑에 예배하고 스님의 진영에 추모하여 영원히 제자의 의식을 편 것이니…)”  
李智冠,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4. 伽山文庫.

과거 이곳은 조선후기 지방사료의 기록을 통해 屯田寺로 알려져 왔으나, 1960년대 『陳田』銘 瓦片의 수습과 1975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바로 이곳이 九山禪門의 효시가 된 迦智山門의 初祖 道義禪師가 수도하였던 진전사임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중요성에 의해 조계종에서는 진전사지를 선종불교의 대도량으로 이어가고자 중창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앞서 舊寺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양양군을 통하여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문화재청의 발굴허가승인을 받아 1차로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2월말까지 약 120일 동안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200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1달간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금번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부도탑이 위치한 북서편 일대로<sup>2)</sup>, 조사 전 이곳은 1975년 시굴조사 완료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져 사방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통해, 진전사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중창과 가람의 변화를 반복하면서, 한때는 기존의 사상권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초기 선종의 수도처에서부터 고려시대 불국토의 한 부분으로 번창하였던 사찰로 혹은 조선시대까지 이 지역 종교적 민심의 중심지로 남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법등을 밝혀왔음을 유구와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전사지의 고고학적인 검토와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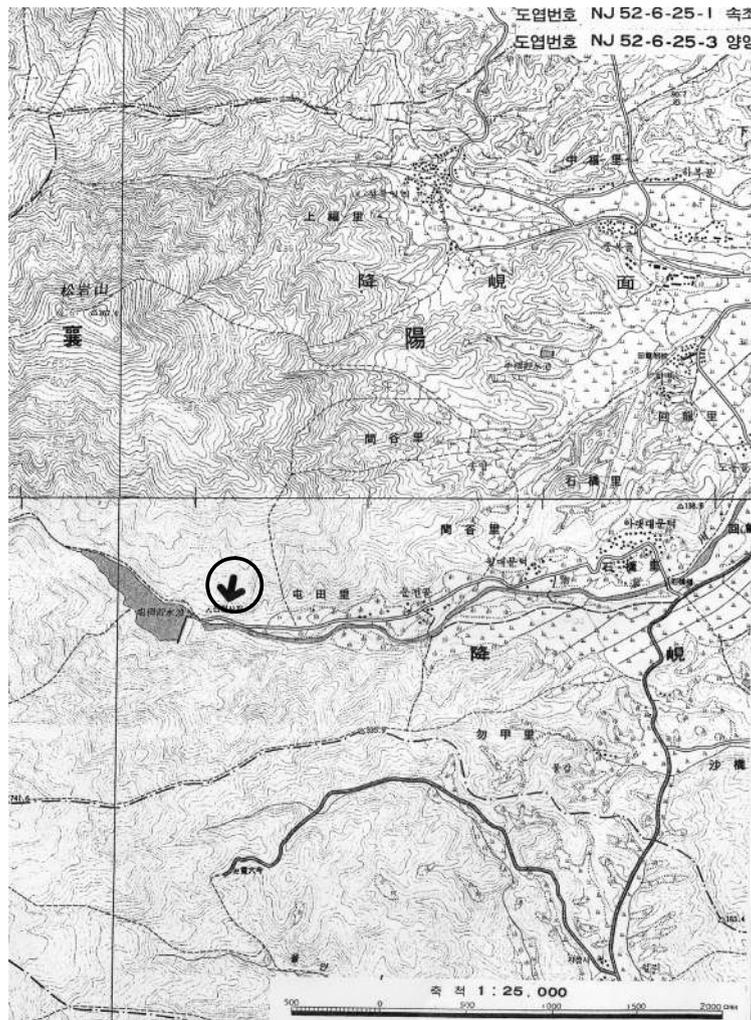
## II. 遺蹟의 位置 및 現狀

양양 진전사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 37번지 일대로, 설악산 동쪽 끝 계곡 해발 360m 정도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즉 설악산 대청봉에서 동쪽

---

2) 사지는 크게 삼층석탑이 위치한 일대와 부도탑이 위치한 일대로 구분될 수 있는데, 197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陳田』銘 기와의 출토가 부도탑이 위치한 사지에서만 보이고 있어, 일단 이곳을 '陳田寺址'로 명명하고자 한다.

으로 뺀 화채봉을 따라가다 보면 송암산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뺀어 내린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계곡에 못 미쳐 넓게 형성된 대지가 펼쳐지고 바로 이곳 진전사가 자리잡았던 곳이다. 현재는 속초비행장에서 서쪽으로 4km쯤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설악산 자락 끝에 둔전 저수지가 있고, 이 둔전 저수지 아래쪽 북편의 평탄지에 진전사지 3층석탑(국보제122호)을 중심으로 한 건물지가,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계곡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가면 둔전 저수지 북쪽 구릉 위에 도의선 사부도탑(보물제439호)이 위치하고 있다(도면 1) (사진 1, 2).



도면 1. 유적의 위치도 (1 : 25,000)



사진 1. 조사 전 모습(위치표시)



사진 2. 조사 전 제초작업 후 모습

진전사지는 1965년 정영호 박사가 처음으로 진전사지를 답사한 후 학계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974년에는 삼층석탑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1975년에는 부도탑 서편의 평탄지에 대해 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진전사지 발굴보고, 1989).

발굴 조사 전 이곳은 경작지에서 나온 잡석들을 쌓아놓은 석단이 사지를 중심으로 높이 0.5~1m, 폭 3m 크기로 빙 둘러져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1975년 당시 시굴조사를 하면서 쌓아놓은 퇴적토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또한 사지의 곳곳에서 건물지 초석과 석열이 칩닝쿨과 잡풀에 덮여 희미하게나마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확인·보고된 바 있는 비석의 이수를 비롯하여 각종 석조물의 부재들이 많이 마모된 채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던 것을 조사구역의 남동측에 모아 실측을 통해 기록화 하였다.

### Ⅲ. 陳田寺址 沿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전사지는 통일신라시대 禪宗의 시작을 연 도의선사가 수행하였던 곳으로, 그 역사적·종교적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도의선사는 당시 중국으로부터 신라로 귀국하여 선법을 펼쳤으나 기존의 교종세력으로부터 魔說이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설악 진전사에 은거하게 되었으며 그의 법은 廉居士에 부촉되고 이는 다시 普照에게 전해지니, 1祖는 도의이고 2祖는 염거이며 보조를 3祖라 하였다.<sup>3)</sup> 迦智山門의 道義 외에도 西堂 智藏으로부터 佛法을 배운 禪門은 實相山門의 洪陟, 棟裏山門의 慧哲이 있다. 그러나 진전사의 도의는 한국불교 선종의 宗祖로 추앙받는 인물로서, 九山禪門 중 가장 처음 山門을 열었다. 진전사가 가지산문의 개조인 도의가 개산한 사찰임은 문헌기록을 통해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祖堂集』의 기록을 살펴보면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西堂의 법을 이었고 溟州에서 살았다. 선사의 법명은 道義이고... 江西 洪州의 開元寺로 가서 西堂 智藏에게 배운 후 귀국하여 진전사에 은거하였다.”<sup>4)</sup>

3) 李智冠,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伽山文庫, 1994, 106~107쪽.

4) 『祖堂集』 17卷, 雪嶽 陳田寺 元寂禪師條.

라 하여 그 내용이 담겨있으며, 경북 풍기읍의 비로사의 眞空大師(855~937) 碑文에서는

“그 후 업명을 받들고 진전사에 도착하니 기꺼운 바는 직접 도의국사의 유허를 답사하며 그 영답에 예배하고 스님의 진영에 추모하여 영원히 제자의 의식을 편 것이니...”<sup>5)</sup>

라 하여 진전사는 도의선사가 주석하였던 寺址로서 부도가 남아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경북 군위군 인각사의 普覺國尊(1206~1289) 靜照塔碑文에는

“興定 己卯年에 陳田寺의 大雄 長老를 은사로 득도한 다음 具足戒를 받았다.”<sup>6)</sup>

라 하여 일연선사가 진전사에서 大雄 長老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진전사의 법맥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진전사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寺名도 屯田寺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지명이 屯田里이므로 地名을 그대로 寺名으로 사용한 것이라 추정된다. 둔전사로 기록된 史料들도 매우 소략하나마 보이고 있는데, 몇 가지의 자료에 의하면, 邑誌<sup>7)</sup>에서는

屯田寺：“부의 서쪽 30리 설악산 동쪽에 있으나 지금은 폐사되었다. 古塔이 절터 가운데에 있으며, 탑의 4面에는 모두 羅漢相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의 빛을 낸다.”<sup>8)</sup>

屯田洞 塔：“부의 서북쪽 30리 둔전사 옛터에 있다. 4面에는 모두 불상을 만들었고, 탑 아래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밤 기운이 虛明할 때에는 때때로 한 줄기 상서로운 기운이 탑 가운데서부터 일어나 반공에 횡행하는데, 이는 필시 佛力이 이른 것이라고 들 한다.”<sup>9)</sup>

5) 李智冠,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卷二, 伽山文庫, 101~130쪽.

‘...所以奉遵嚴命 得到陳田 所喜 親踏遺墟 禮其靈塔 追感眞師之影 永申弟子之儀...’

6) 李智冠, 2000.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4, 伽山文庫, 238쪽.

7) 서울대 소장(奎10977)으로 편찬자 및 편찬시기에 대하여 알려진 바 없다. 대체로 正祖14·20·24년의 干支가 있어, 정조24년(1800)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先生案에는 1897년대 인물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꾸준히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韓國人文科學院, 1990. 『私撰邑誌』 卷35, 峴山誌條, 385쪽.

‘屯田寺 在府西北三十里雪岳之東今廢 古塔在寺之遺址中而塔之 四面皆作羅漢相至今種種放光.’

9) 韓國人文科學院, 1990. 『私撰邑誌』 卷35, 峴山誌條, 395쪽.

‘屯田洞塔 在府西北三十里屯田寺古址 四面皆作佛像 塔下村人言夜氣虛明之際 時有一條瑞氣 自塔中起

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조선후기에도 이곳을 둔전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자료에도 강현면 둔전리 부락의 서쪽, 둔전사에 탑 1기와 사리탑 1기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sup>10)</sup>

이렇듯 둔전사로 알려져 왔던 寺址는 1960년대의 지표수습 및 1975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유구 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30여편의 『陳田』·『陳陳田田』銘 瓦片이 보고되면서, 진전사의 위치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고<sup>11)</sup> 또한 도의선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금번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발굴조사에서도 『陳田』銘 瓦片이 수 십점 수습됨으로써, 가지산문의 開祖인 도의선사가 머물렀다는 설악 진전사의 위치가 재확인되었다.

특히 진전사지는 3층석탑이 있는 지역과 도의선사 부도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동·서로 약 600m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 『陳田』銘 瓦片이 보이는 곳은 유독 부도가 위치한 주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도의에 의하여 개산된 가지산문은, 일연선사가 구족계를 받은 고종 6년(1219), 당시까지도 진전사라는 寺名을 가지고 존속하다가 어느 시기엔가 廢寺되었으며 조선후기에 와서는 폐사된 채로 둔전사로 불리워져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야 둔전사는 도의선사가 주석하던 진전사임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곳이 南宗禪을 신라에 최초로 전래한 역사성과 대한불교조계종의 宗祖인 도의선사와 연계한 사상성이 부각되는 寺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 IV. 調査內容

본 조사는 조사 전 유구의 현황과약을 위하여 1975에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굴조사 당시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5년 시굴조

---

橫亘半空 必是佛力所致云.’

10)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542쪽.

‘寺址：降峴面 屯田里：屯田里部落ノ西方約二百五十間ノ田中ニ在リ屯田寺址 塔一基アリ硝完全.’

‘菴址：降峴面 屯田里：屯田里部落ノ西方約三百五十間ノ小峰筋ニ在リ舍利塔一基アリ完全.’

彬山信三, 1944. 『朝鮮の石塔』, 208쪽에도 석탑과 부도에 대하여 실려 있다.

11) 檀國大學校 博物館, 1989. 『陳田寺址 發掘報告』, 47쪽.

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곳곳에서 굵은 소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적심 및 기단, 배수로 등 많은 부분에서 유구들이 심하게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지역에는 시굴조사 당시의 퇴적토가 불규칙하게 쌓여 있었고, 주변으로는 1970년대 이전 경작시 주워낸 석재가 진전사지 주위로 쌓여있어 마치 담장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1975년 시굴조사시에 쌓아 놓은 퇴적토와 경작시 나온 할석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후 주변지역에 2×8m 크기의 탐색조사갱을 넣어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진전사지의 전체 영역은 남-북 70m·동-서 65m 크기의 방형을 이루는 사역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출된 주요 건물지는 다음과 같다(사진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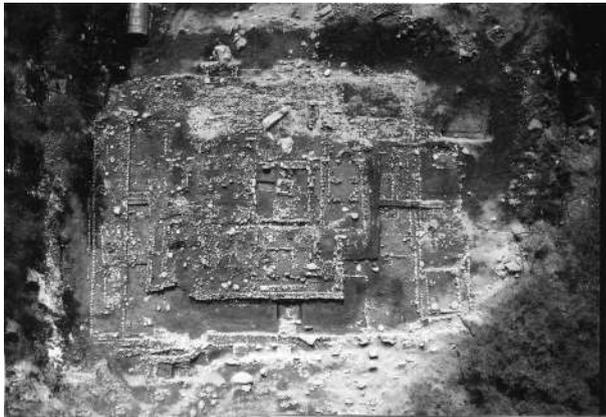


사진 3. 1차 조사 후 유적 전체 모습



사진 4. 2차 조사 후 모습

## 1. 탑 지

탑지는 진전사지의 남쪽 축대 계단에서 북쪽으로 17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지대석 1~2단만이 파손된 채 남아 있고,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탑재들이 파손된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탑을 파손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지대석의 크기는 정면 2.6m, 측면 2.6m 크기로 나타났으며,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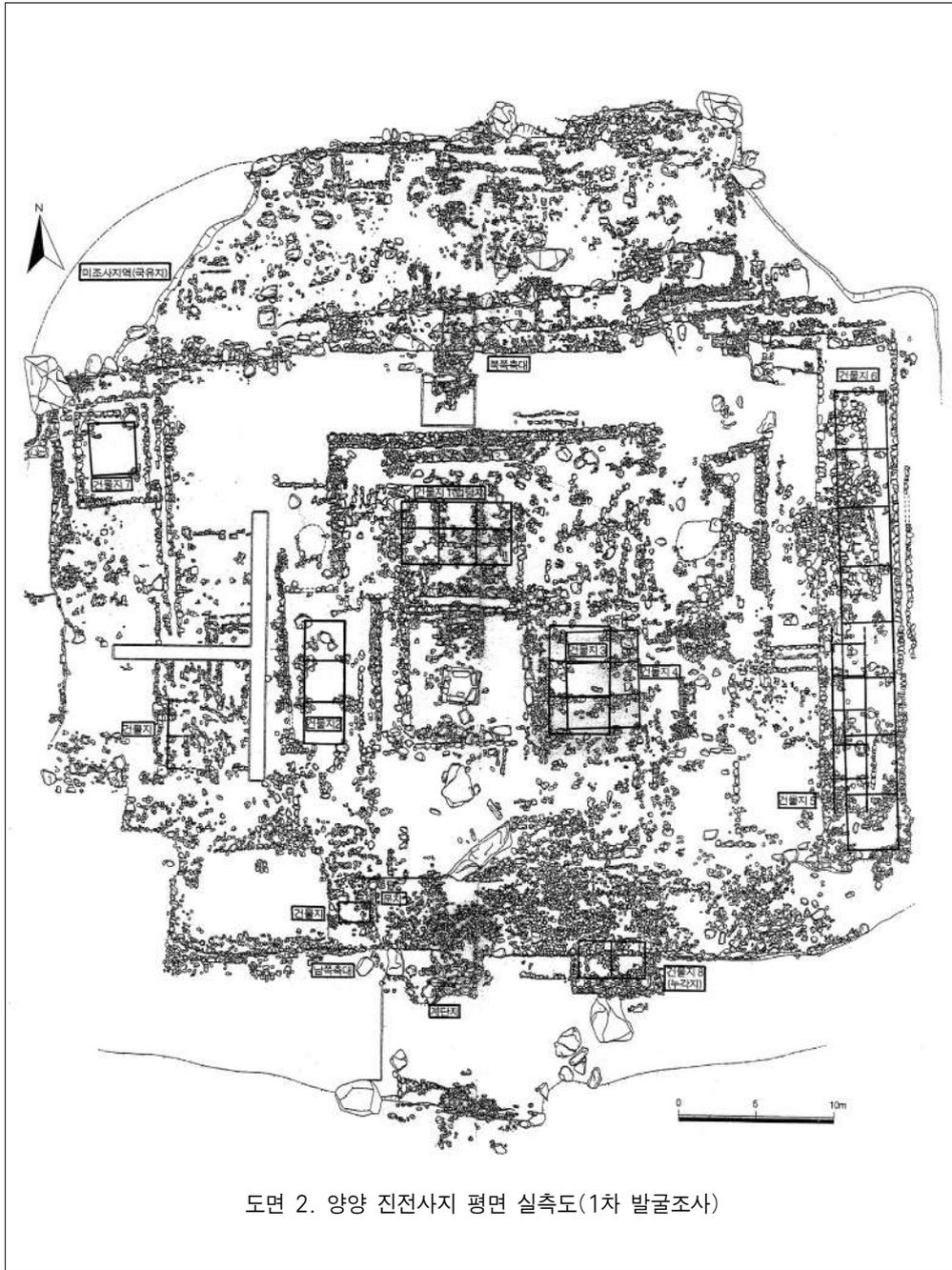
진전사지의 건물지들은 현재 이 탑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북편 8m 지점에 건물지 1(법당지), 서편 7m 지점에 건물지 2, 동편 6m 지점에 건물지 3·4가 위치하고 있고, 동편 26m 지점에는 건물지 5·6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건물지들의 방향은 모두 탑을 향하고 있다.

탑지 주변의 바닥으로는 30×20cm 크기의 박석을 바닥에 깔았으나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고 북쪽 일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탑지의 북편 4m 지점에는 건물지 1로 오르기 위한 길이 120cm, 폭 40cm, 높이 40cm 크기의 디딤돌이 위치하고 있는데, 디딤돌 북쪽으로는 2중기단 위에 법당지가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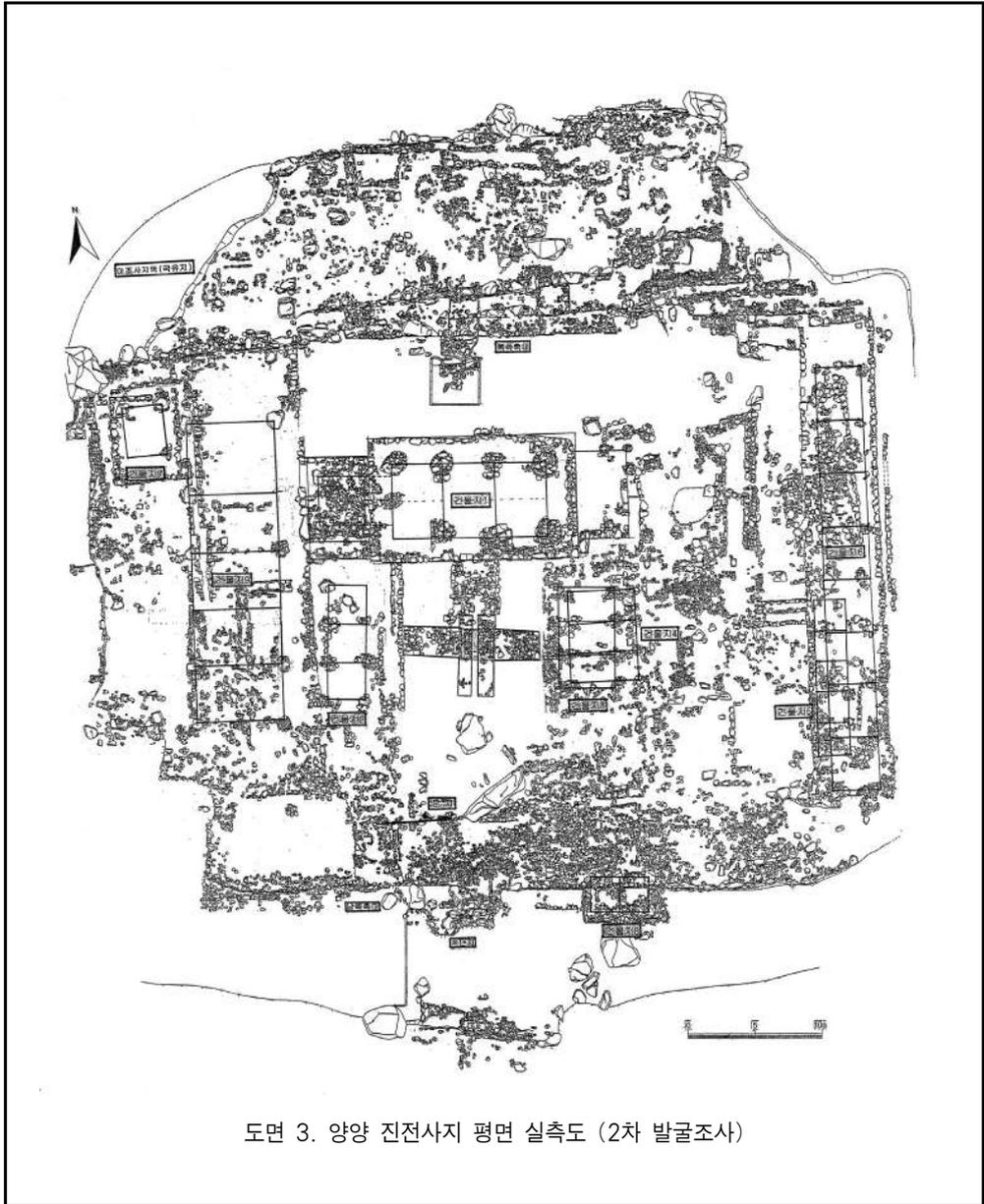
탑지와 남쪽 축대 사이에는 길이 6m×폭 1.8m 크기의 대형 자연석이 놓여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서진 탑 조각을 제거한 후 탑의 지대석을 들어낸 결과, 탑 지대석 밑 가장 자리에서 소량의 기와조각과 진흙이 다져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할석이 불규칙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지대석 안 쪽 빈 공간에도 지대석 높이 만큼 할석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또한 탑의 위치이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탑을 중심으로 동·서·남쪽의 3방향으로 탑의 지대석 길이와 같은 폭 260cm, 길이 460cm 크기의 탐색트렌치를 T자 모양으로 굴착한 결과, 약간의 문화층(5~10cm)이 노출되었고 문화층 아래의 갈색 진흙 속에서(기와나 유물이 없는 생토층) 40cm×30cm×20cm 크기의 자연할석을 이용한 할석다짐이 확인되었다. 탑의 동쪽기단에서 동쪽으로 120cm 지점 떨어진 할석다짐 속에서는 고려시대 토기병을 세워놓고 그 위에 고려백자 접시(11말C~12C초로 추정)를 거꾸로 덮은 모습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는 석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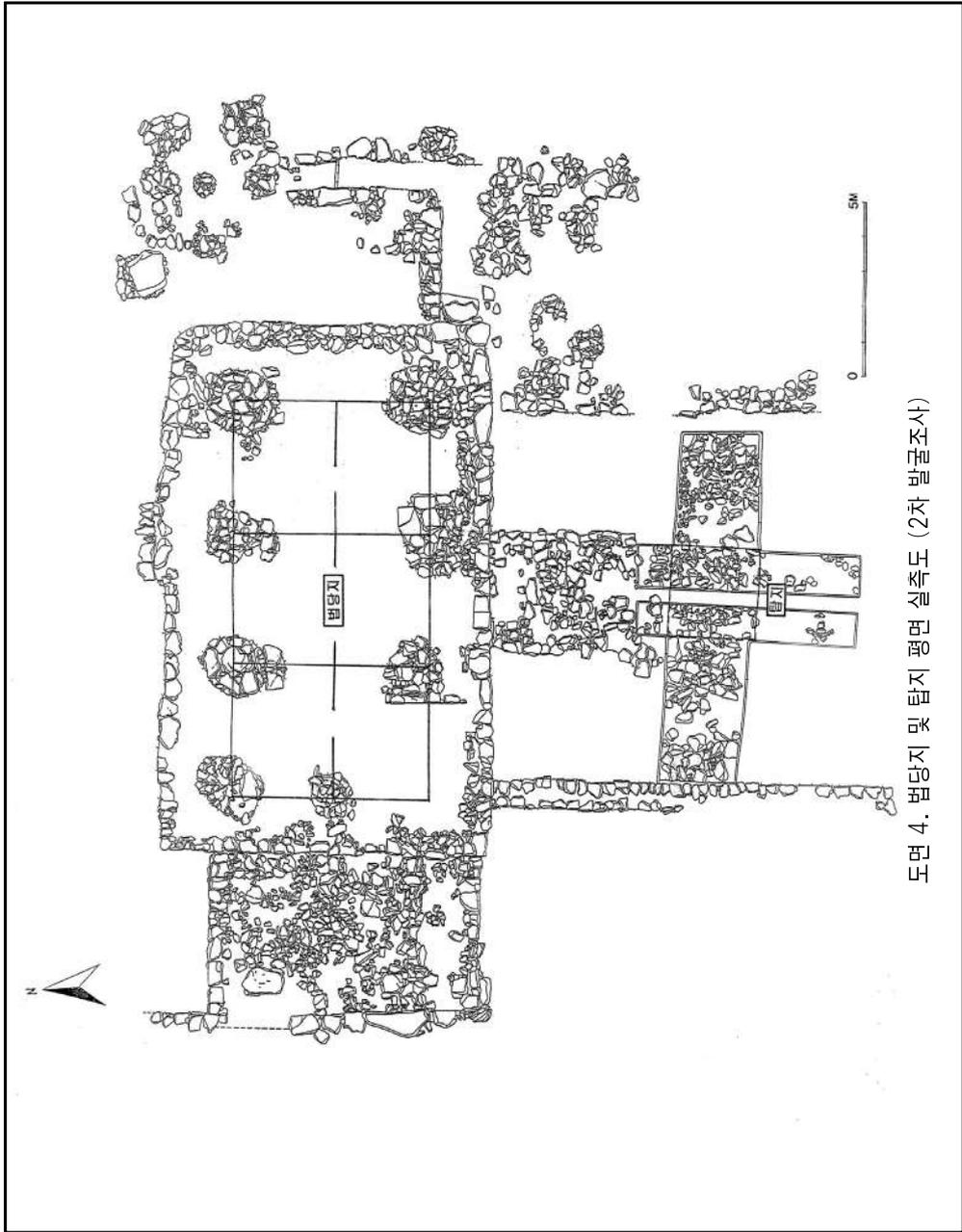
탑의 북쪽 지대석에서 법당지까지 이어지는 공간에는 30cm×20cm 크기의 할석을 편평하게 깔은 탑도가 북쪽 법당지의 기단 밑까지 길이 5.3cm, 폭 3.6cm 크기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2차 조사로 노출된 법당지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도면 2, 3, 4) (사진 5, 6).



도면 2. 양양 진전사지 평면 실측도(1차 발굴조사)



도면 3. 양양 진전사지 평면 실측도 (2차 발굴조사)



도면 4. 범당지 및 탐지 평면 실측도 (2차 발공조사)



사진 5. 1차 조사 후 탐지 모습



사진 6. 2차 조사 후 탐지 모습

## 2. 건물지 1(법당지)

건물지 1은 진전사지의 중심 건물지로서 탑지 북쪽 약 8m 지점에 위치한다. 탑지에서 북쪽으로 4m까지는 30×20cm 크기의 박석을 편평하게 깔았고, 그 뒤쪽으로는 2층 기단을 만든 다음 정면 3칸·측면 2칸의 법당지를 조성하였다.

정면 1칸의 길이는 2.8m이며, 측면 첫째 칸의 폭은 2.6m, 둘째 칸의 넓이는 2m로, 전체 건물지의 기둥거리는 정면 8.4m, 측면 4.6m로 나타났다. 건물지 1의 서쪽과 북쪽 4m 지점에는 폭 1m·높이 60~80cm, 길이 32m 크기의 담장지가 ‘ㄱ’자 모양으로 노출되었다.

또한 건물지 1의 서북 모서리에는 대형의 자연 초석(길이 160cm×폭 120cm×두께 40~50cm)이 노출되었는데 상면에는 100×120cm 크기의 방형 주좌면이 만들어져 있다. 적심은 보통 40×20cm 크기의 자연 할석을 지름 1m 크기로 자연스럽게 모아 만들었으며 일부는 결실되었다.

법당지는 1차 조사시에 정면 3칸·측면 2칸의 작은 건물지로 노출되었는데, 진전사가 폐사되기 전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이 건물지의 적심 아래에서는 또 다른 적심이 정연하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일단 1차 조사시 노출된 법당지의 적심과 담장지를 차례로 걷어내고 하층에서 노출된 건물지의 적심을 노출시켰다. 그 결과 정면 3칸·측면 2칸의 새로운 법당지가 노출되었는데, 법당지 기단의 길이가 동-서 16m, 남-북 9.5m 크기로 큰 규모를 이룬다. 적심은 서쪽 정면 모서리와 동쪽 측면 중간 적심 등 2곳만이 결실되었을 뿐 나머지는 원상태로 잘 남아 있다.

적심간 거리는 정면 4m, 측면 3m으로 적심간의 총 길이는 동서 12m, 남북 6m이다. 적심은 30~4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납작한 면을 맞추어 쌓았고 적심 직경은 1.8~2.2m 크기로 둥글게 2단 정도 쌓았다.

이들 적심은 각 기단에서 안쪽으로 1.2m 정도 들여쌓았고 적심 밑에는 탑지와 마찬가지로 소량의 기와조각이 노출되었다. 그 밑으로 다른 문화층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건 가람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초기 법당지의 기단은 모두 정연하게 노출되었는데 길이 80cm, 폭 40cm, 높이 30cm 크기의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자연잡석층인(유물이나 문화층이 없음) 생토층 속에서부터 쌓은 것으로 나타나 초기 건물지 또는 이른 시기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1차 조사시에 법당지 앞쪽으로 2개의 기단이 노출되었는데, 조사 결과 앞쪽의 기단은 탑의 탑도 위에 쌓은 것으로 1차조사 법당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뒤쪽 기단은 2차

조사시에 노출된 법당지의 기단으로 밝혀져 탑의 탑도가 2차조사 법당지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탑과 초기 법당지가 같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1차 조사시 법당지 뒤쪽으로 2개의 담장지가 노출되었는데 2차조사시 노출된 건물지가 폐기된 후 바로 뒤쪽의 담장지를 쌓았고 이 담장지가 폐기된 다음 담장지를 모두 드러낸 후 담장지의 기초석만을 남긴 후 북쪽에 또다른 담장지를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건 법당지가 조성되고 난 후 이 법당지의 동·서측면에는 기단 정면에서 측면으로 1.6m 들어가 익실형태의 또 다른 건물지가 추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편 건물지 기단의 크기는 정면 4.9m, 측면 6m이고 건물은 정면·측면 각각 1칸으로 적심간거리는 정면 3.6m, 측면 4m으로 나타났다. 동편의 건물지 기단의 크기는 정면 4.3m, 측면 6m로 추정되나 파괴가 심하여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다(도면 2, 3, 4) (사진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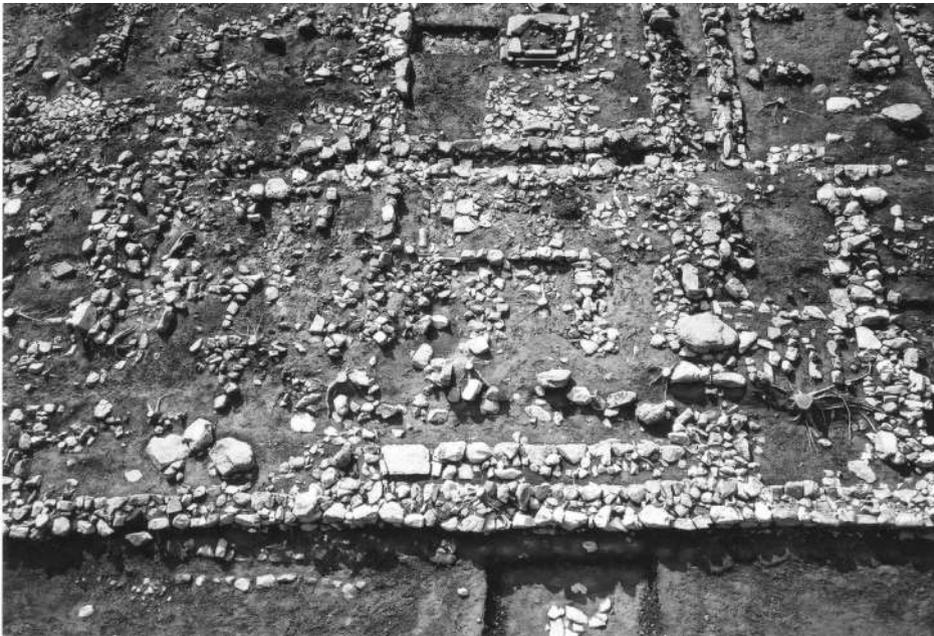


사진 7. 1차 조사 후 건물지 1(법당지) 모습



사진 8. 2차 조사 후 건물지 1(법당지) 모습

### 3. 건물지 2

건물지 2는 탑지의 서쪽 약 7m 지점에 위치하며, 탑지를 향하고 있다.(동향) 건물은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정면 1칸의 길이는 3.2m, 측면 1칸의 폭은 3m이고 전체 건물지의 기둥거리는 정면 9.6m·측면 3m로 나타났다.

건물지 2 역시 건물지 1과 마찬가지로 앞쪽에 이중기단을 조성하였고 남·북·서쪽으로는 기단석열이 결실된 상태이다. 또한 초·적심은 서·북 모서리와 남·동 모서리에 각각 1개씩 자연 초석이 남아있고, 동·북모서리는 초·적심 모두 결실되었다.

적심은 30×4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지름 140cm 크기의 원형으로 1번 깔은 형태이다. 건물지 2는 주위에 다른 적심이나 석열이 발견되지 않는 깨끗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건물이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도면 2, 3) (사진 9).



사진 9. 건물지 2 모습

#### 4. 건물지 3

건물지 3은 탑지 동쪽 5.4m 지점에서 탑지를 향하여(서향) 건물지 2 와 대칭으로 마주 보며 위치하고 있다. 주칸은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노출되었는데, 정면 1칸의 길이는 2.8m, 측면 1칸의 폭은 4.6m이며 전체 건물지의 기둥거리는 정면 8.4m·측면 4.6m로 나타났다.

건물지 3 앞에는 건물지 1·2와 달리 한번의 기단을 만든 후 그 기단에서 2m의 거리를두고 적심을 조성하였다. 현재 초석은 남아 있지 않으며, 적심은 서북모서리 1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잘 남아 있는데, 적심의 크기는 20×20cm 크기의 자연 할석을 이용하여 지름 120cm 내외로 1벌만 깔아 만든 형식이다(도면 2, 3) (사진 10).



사진 10. 건물지 3·4 모습

## 5. 건물지 4

건물지 4는 건물지 3 바로 동쪽에 인접하여 탑지를 향하는 방향(서향)으로 노출되었다. 건물지의 크기는 정면 3칸·측면 1칸으로, 정면 1칸의 길이는 2.6m, 측면 1칸의 폭은 5.4m로 노출되었으며 전체 건물지의 기둥거리는 정면 7.4m·측면 5.4m로 나타났다.

건물지를 이루는 초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적심은 모두 남아 있다. 적심은 20×15cm 크기의 자연 할석을 이용하여 1번 깔아 지름 80~120cm의 원형 적심을 조성하였다. 특히 서·북 모서리 적심은 진전사지 탑과 같은 석질의 옥개석 받침(3단 받침)이 파손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탑이 파손된 이후에 만든 건물지로 추정된다.

또한 남·북 모서리 적심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건물지 3과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물지 4가 소실된 후 건물지 3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면 2, 3) (사진 10).

## 6. 건물지 5

건물지 5는 진전사지의 동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은 탑지를 향하고 있다. (북향) 주칸은 정면 5칸·측면 1칸이며, 정면 1칸의 길이는 2.6m, 측면 폭은 2.4m로 횡방향으로 길게 만든 승방지로 추정된다.

건물지의 정면에는 1단의 기단이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쪽으로는 40cm 떨어진 위치에 3.8m 길이의 기단석열이 건물지와 같은 방향으로 일부 남아 있다.

초석은 모두 4개 남아있는데, 80×70×20cm 크기의 편평한 자연 초석이다. 적심은 많은 부분이 결실되어 형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정확한 크기는 현재 북쪽부분이 결실되어 확실히 알 수 없다.

각 건물간의 방향과 유물상으로 보아 건물지 5는 건물지 6이 조성되면서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도면 2, 3) (사진 11).



사진 11. 건물지 5 모습

## 7. 건물지 6

건물지 6은 진전사지 동쪽 끝부분에 남-북 방향으로 탑지를(북향) 향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 8칸·측면 1칸의 구성이다. 건물의 크기는 정면 1칸의 길이 4.4m, 측면 1칸의 폭 3.6m이며, 전체 기둥간의 거리는 정면 35.2m·측면 3.6m인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대형 건물지로 노출되었다.

건물지 동·서 양쪽으로는 40×30cm 크기의 할석을 1단으로 조성한 기단석열이 잘 남아 있고, 동쪽기단 중간부분에는 기단석열과 나란하게 40cm 떨어진 위치에서 배수시설의 기단석열이 놓여져 있다.

건물지 가운데에 1개의 초석이 남아 있는데 초석의 크기는 길이 140cm·폭100cm·두께 50~60cm 크기로 대형의 자연 초석이다. 적심들은 일부 결실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20×30cm 크기의 자연 할석을 지름 120cm 크기로 1단을 깔아 만들었다. 건물 조성시 정면의 적심열은 기단에서 약 140cm 정도, 후면은 80cm 정도의 거리를 두어, 정면쪽에 보다 더 넓은 공간을 두고 기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중간과 북쪽에서는 아궁이 형식의 화덕자리(길이 50×폭 80×높이 20cm)가 2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소토가 가득하게 노출되었다(도면 2, 3) (사진 12).



사진 12. 건물지 6 모습

## 8. 건물지 7(추정 삼성각지)

건물지 7은 진전사지 서북측에 따로 떨어져 위치하는데, 남-북 7m·동-서 5.4m의 기단을 쌓은 후, 기단 안쪽의 북측에 치우쳐 정면 1칸·측면 1칸의 건물지를 만든 모습으로, 현재 길이 100cm·폭 90cm·두께 30cm 크기의 초석 2개와 동남모서리의 적심 1개가 남아있다. 건물지의 크기는 정면 3.2m·측면 4m로, 정남향을 하고 있으며, 건물지 기단의 동남쪽 모서리에 1단의 계단이 마련되어 있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서북모서리 부분이라 외측 경사지에는 붕괴를 대비한 석축이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배수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모두 2번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내부에는 불탄 기와와 숯조각이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도면 2, 3) (사진 13).



사진 13. 건물지 7 모습

## 9. 건물지 8(추정 누각지)

누각지는 남쪽 축대 중앙 계단지로부터 좌측으로 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축대 밖으로 길이 6.2m·폭 2.8m·높이 0.8~1m 크기의 장방형 모양으로 조성되었다. 이 건물은 남쪽 축대를 만든 후 축대의 남쪽에 덧붙여 축조한 것으로 보이며 누각지의 기단석은 남쪽 축대와 같은 형식으로 아래쪽에 비교적 두꺼운 박석을 깔아 수평을 맞춘 후 그 위에 70×40cm 크기의 할석을 1단 쌓은 다음 다시 위쪽으로 불규칙한 할석을 외측면을 맞추며 쌓았다.

누각지는 정면 2칸·측면 1칸의 구성으로, 정면 1칸의 길이는 2.4m, 측면 1칸의 폭은 2.8m이며, 정면의 전체 기둥간 거리는 4.8m이다.

상면에는 모두 3개의 초석이 남아 있고(120×80×40cm) 나머지 3개는 적심만이 남아 있는데 정면 2칸의 초석은 남쪽 축대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누각지 남쪽으로는 길이 3.4m·폭 3m 크기의 자연 암반이 누각지와 맞물려 위치한다(도면 2, 3) (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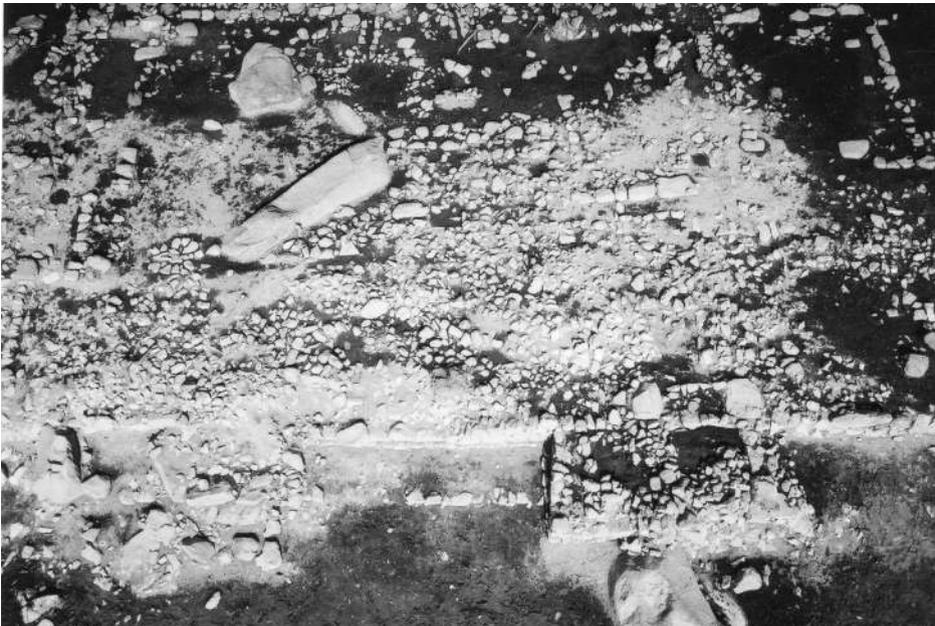


사진 14. 남쪽축대 및 건물지 8 (추정 누각지) 모습

## 10. 건물지 9

사역의 서편 끝에서 초석 일부가 노출되었으며 다른 유구와의 중복상태가 심한 상태이므로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곳은 1차 조사시 동편 끝부분에서 노출된 정면 8칸·측면 1칸의 대형 건물지(건물지 6)와 대칭되는 유구의 일부로 보여 추가로 조사하게 된 부분이다.

건물지 9는 1차 조사시 초석 3개의 노출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이곳에 폭 1.5m×7m 크기의 탐색트렌치를 넣어 조사한 결과, 초석 6개·적심 2개 등이 노출되어 탐을 기준으로 정면 5칸·측면 1칸의 건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석은 모두 건물지 9의 서편에서만 노출되었는데, 이는 여러번의 증·개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초석의 크기는 100cm×80cm×30cm 정도이고, 건물지의 남-북 길이는 모두 23.3m로 나타나고 있다. 측면간(동-서)의 폭은 잘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적심이 확인된 것을 보면 6.5m로 추정된다. 적심은 기단에서 안쪽으로 30cm정도 떨어져 40cm×30cm×20cm 크기의 자연 할석을 이용하여 둥글게 만들어졌다(도면 2, 3).

## 11. 문 지

남쪽 축대의 계단지로 올라서면 탐지로 들어가는 길의 중간쯤 되는 거리인 4m 지점의 좌측에 대형 적심 2기가 확인된다. 이는 지름 1.8m의 대형 적심 2개가 중심거리 5.4m의 간격으로 위치하는데, 그 위치와 크기로 보아 일주문 내지는 중문지로 추정된다.

문지의 위치는 계단지와 탐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아마도 계단지 바로 뒤편에 길이 6m·폭 1.8m 크기의 대형 자연 암반이 놓여 있어 좌측으로 옮겨 문지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2, 3).

## 12. 북쪽 축대 지역

건물지 1의 북쪽으로 다시 17m 떨어진 지점에서는 건물지 1을 위한 담장지가 동-서 32m 정도의 길이로 노출되었다. 담장지 북쪽으로는 6×48m 크기의 공간이 동-서 방향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공간의 북쪽으로는 길이 55m·높이 70~90cm 크기의 첫 번째 축대가 위치하고 있고 다시 1m 뒤에는 두 번째 축대가 있으며 또 다시 1m 뒤에 세 번째 축대가 있어, 모두 3번의 축대 조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축대의 축조시기는

북쪽의 3번째 축대를 만든 후 점차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2번째 축대, 그리고 첫 번째 축대 순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된다.

첫 번째 축대 가운데에는 폭3m, 길이 1.7m 크기의 계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축대는 40~80cm 크기의 자연 할석에서부터 길이 3m 정도의 대형 자연석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외측면만 맞추어 쌓은 막돌 허튼층 쌓기를 하였다. 그 높이는 1m 정도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두 번째 축대는 축대 석열이 잘 남아있으나, 그 앞뒤로 선후의 또 다른 축대가 있어 정확한 크기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세 번째 축대는 사지 내에 산재한 대형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외측면을 맞추어 놓고 그 사이에 할석을 쌓는 방식으로 축대를 조성하였다. 세 번째 축대 양측면으로는 폭 2.6m, 길이 1.2m, 높이 0.7m 크기의 계단지가 양쪽으로 노출되었다.

이 계단지 위쪽의 공간 내에는 남-북 12~14m, 동-서 36~55m 크기의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의 공간 내에는 2개의 초석과 동-서로 만든 배수구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결실되어 건물지 확인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이 북쪽으로는 사지 북측에서 흘러내리는 토석을 막기 위한 축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앞쪽의 공간은 축대 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도면 2, 3) (사진 15).



사진 15. 북쪽 축대 모습

## V. 陳田寺址에 대한 檢討

### 1. 탐 지

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탐지는 그 지대석 밑에서 기와편들이 노출되고 있어 초기 가람의 탐지가 아닌 후대의 소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대석을 해체하여 하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대석 밑 가장 자리에서 약간의 기와조각과 진흙이 다져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할석이 불규칙하게 노출되었다. 지대석 안 쪽 빈 공간에는 지대석 높이 만큼 할석다짐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탐의 동쪽기단에서 동측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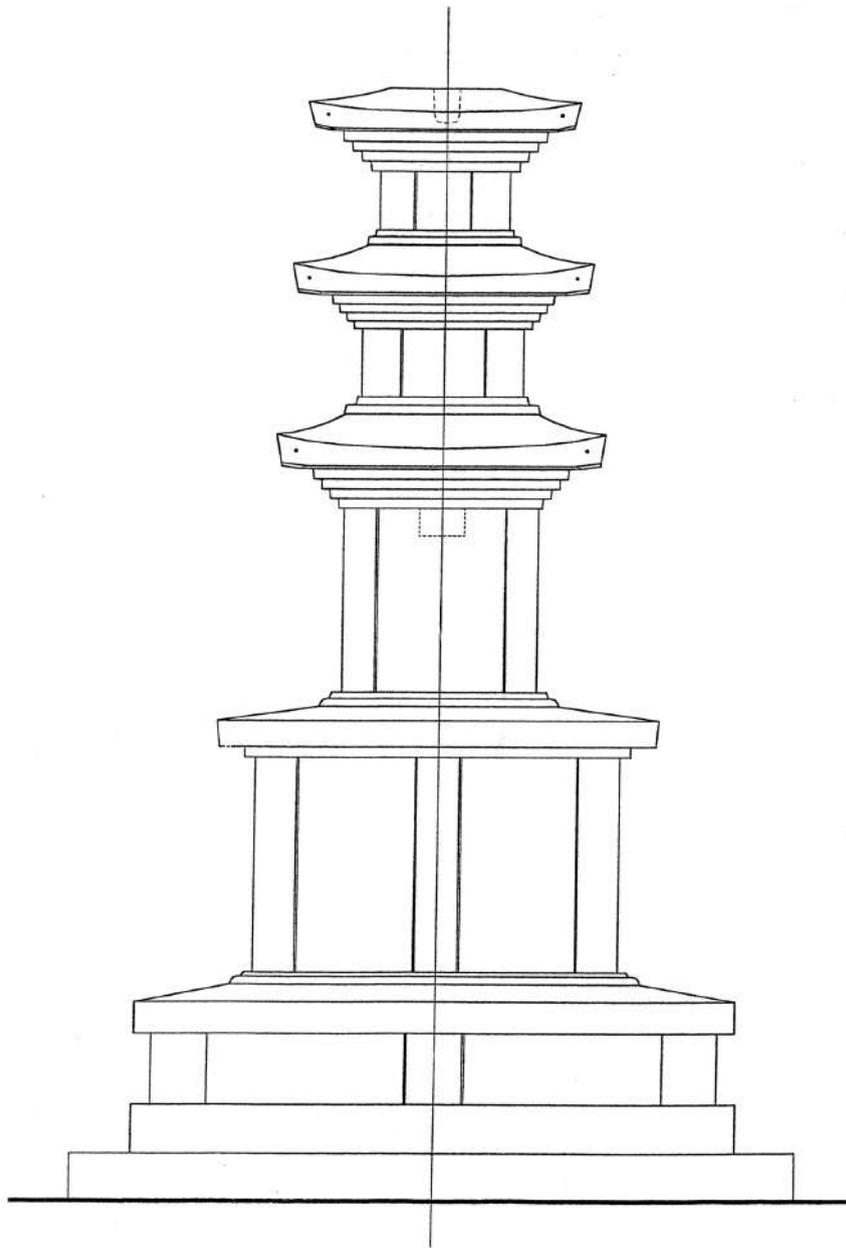


사진 16. 탐지 주변 진단구 나온 모습

로 120cm 떨어진 지점에서 보이는 또다른 할석다짐 속에서는 고려시대 토기병을 세워놓고 그 위에 고려백자 접시 (11C 말~12C초로 추정)를 거꾸로 덮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석탑과 관련이 깊은 진단구로 추정된다 (사진 16).

탐의 북쪽 지대석에서 법당지까지 이어지는 공간에는 할석을 편평하게 깔은 탐도가 북쪽 법당지의 기단 밑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2차 조사를 통해 노출된 법당지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조사 중 현재 남아 있는 탐부재를 조사한 결과 다행히 복원에 필요한 부재들이 남아 있어 정밀실측을 통한 복원작업을 실시한 결과 전형적인 통일신라말기의 이중기단에 삼층석탑으로 도상복원 되었다(도면 5).



도면 5. 진전사지 석탑 복원 입면도 (1/20)

## 2. 건물지

건물지 1은 진전사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지(법당지)로서 정면 3칸·측면 2칸이 노출되었는데, 진전사가 폐사되기 직전까지 존속했던 건물지로 추정된다. 법당지는 1차 조사시에는 정면 3칸·측면 2칸의 구성을 보였으나, 2차 조사시에 확인된 그 하부 건물은 정면 3칸·측면 2칸으로 1차 조사시 조사된 건물과 그 칸수는 같지만 그 기단의 길이가 동·서 16m·남·북 9.5m로 보다 훨씬 큰 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앞쪽 2개의 기단 역시 앞의 것은 1차 조사시에 노출된 규모가 작은 법당지의 기단석열이고, 뒤의 것은 2차 조사시에 노출된 하부 건물지의 기단임이 확인되었다. 법당지는 지금까지 진전사에서 노출된 다른 건물지보다 적심의 크기나 규모면에서 단연 우세하며 적심의 짜임새나 주변에서 출토되는 유물상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건물지로 추정된다. 탑지와 법당지 사이에 노출된 담도 또한 2차 조사시에 확인된 하부의 법당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당지의 좌·우측으로는 익실 형태의 또 다른 건물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각각 1칸의 규모이다. 동편의 건물지는 파괴가 심하여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나 서편의 건물지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남쪽 축대 오른쪽으로 돌출되게 축조된 추정 누각지와 남쪽계단지 북편에 위치한 추정 중문지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나말려초 산지 가람의 일면을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인 건축양식이다.

또한 1차 조사 과정에서 초석 3개만 노출되었던 건물지 9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건물지로 확인되었는데, 건물의 규모는 다르지만 동편 건물지 5·6과 대칭되게 축조한 점 등으로 보아 진전사는 창건시부터 전체적인 계획하에 축조된 정형화된 산지가람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법당지와 건물지 2, 4, 9 등이 진전사의 창건 건물지로 추정되며, 그밖의 건물지들은 대체적으로 나말려초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당지의 상부 건물지와 주변 건물지들은 오랜 기간동안 증·개축이 이루어진 관계로 상층유구 즉 조선시대 폐사 직전까지의 건물지 유구와 상당부분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 3. 기와류

이번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을 보면 기와류를 제외하면 그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유물로서 건물의 성격 및 건립시기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와류는 이미 1975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시굴조사시에 출토된 기와 편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쌓여 있었고,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기와들은 탐지를 중심으로 볼 때 주로 외곽에서 출토되었다.

진전사지 발굴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기와유물'은 막새류와 평기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량의 치미편이 함께 수습되었다.

막새류를 살펴보면, 수막새의 경우 크게 '연화문 수막새'와 '귀목문 수막새'로 구분된다(사진 17).

'연화문 수막새'는 총 6종 31점으로, 통일신라시대로 소급될 수 있는 보상화문 및 여의두문이 첨가된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부는 굴산사지, 임영관지, 향성사지 등 영동지역의 다른 건물지 유적에서



사진 17. 수막새 나온 모습

출토 및 지표수습된 수막새와 규격 및 문양이 동일하여 동일와범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동지역의 기와 제작과 수급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귀목문 수막새'는 총 1종 8점이 확인되었는데, 자방 및 주연부의 주위로 양감이 큰 원권을 여러 번 돌린 모습이다.

암막새 역시 총 8종 11점이 확인된 '당초문 암막새'와 수막새와 한 조를 이루는 '귀목문 암막새' 9점으로 구분된다(사진 18).



사진 18. 암막새 나온 모습

평기와의 경우, 수키와는 미구가 달린 ‘유단식 수키와’와 미구가 없는 ‘무단식 수키와. 즉 토수기와’로 나눌 수 있다. 기와의 태토는 대다수 정선된 편으로, 회백색·회갈색·회흑색·적갈색 등의 색조를 띠며 경질소성이 대부분이다.

‘유단식 수키와’의 경우,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등면과 내면이 모두 깨끗하게 정면된 사다리꼴의 무문기와가 대다수인데, 미구의 길이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언강은 대다수 직각을 이룬다. 토수기와는 미구는 없으나 상단부를 잘 다듬어 정교하게 제작한 것과 거칠게 사다리꼴 모양만 만들어 제작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어골문과 같이 폭이 좁은 장판의 타날판으로 문양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키와의 내면에는 일정한 폭으로 각이 지며 돌아가는데 이는 나무 와통의 제작시 등근 면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분할은 모두 2매 분할방식으로 상부부터 하부까지 한번에 그었는데, 대다수 안에서 밖의 방향이나 일부는 한쪽은 안에서 밖으로 다른 한쪽은 밖에서 안으로 와도분할한 유물도 확인되었다.

암키와는 기와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암키와에 비하여 그 문양의 새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시기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각 문양별 기와유물에서 와통 표면의 거친 흔적이 일정하게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어, 한시기의 燔瓦과정에 있어 문양타날시 이루어진 의도적 제작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陳田’ 및 ‘田’銘과 같이 寺名을 증명해주는 명문기와를 비롯하여, 물고기가 새겨진 3종의 魚紋기와, 연화문, 동심원문, 차륜문, 어골문, 격자문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많은 수가 출토된 魚紋은 진전사지 외에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양의 발생이 해안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지방적 특색<sup>12)</sup>인지, 아니면 불교에서 상징적

표현물로서의 사용인지, 혹은 당시 건물의 주된 폐사 요인이었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진전사지에서 출토된 암키와는 대다수 같은 패턴의 문양을 어골문, 격자문과 같이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문양과 복합적으로 조식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 타날형식이 불규칙하고 조잡하기는 하나 그 새김이 뚜렷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사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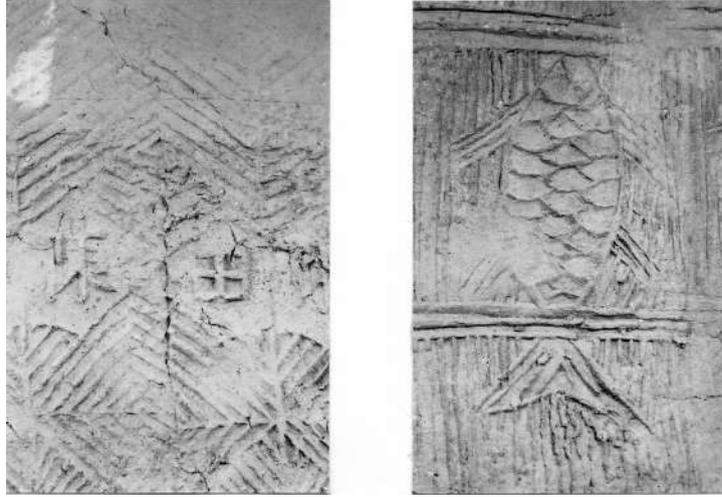


사진 19. 『陳田』銘 기와 세부 모습(左)  
魚紋암키와 세부 모습(우)

측면의 와도분할흔은 대부분 깊고 넓게 한번에 그어내거나 모서리를 중심으로 얇게 자국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단과 가까운 부분에는 일정하게 띠매듭흔이 보이고 있다. 암키와 중에는 판형처럼 편편한 마루기와의 일부 출토되었으나 이외의 기능성 기와는 보이지 않았다.

#### 4. 자기류

진전사지 발굴조사를 통해서 기와류, 토기류 등과 함께 다량의 자기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자기류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가 고루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백자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출토된 자기류 가운데 형태와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154점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청자 24점, 분청사기 28점, 백자 101점으로 백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기종은 대접, 접시, 잔 등 여러 형태가 보이는 가운데 특히 대접이 주종을 이룬다.

12) 1974년~1979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진전사지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오징어 문양' 기와가 출토된 예가 보고되어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이 문양을 확인할 수 없었다.

『陳田寺址 發掘報告』, 1989.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청자는 대접과 접시, 완 등이 다양하게 전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나타난다. 시문방법으로는 양각과 음각을 이용하여 문양을 시문한 것이 대부분이고 문양은 국화문, 모란문, 연화문 등이 보인다. 굽은 해무리굽, 짧은 수직굽, 안굽 등이 보인다. 태토는 회청색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유약은 비색, 암녹색, 담녹색을 띠는 유약을 시유하였다. 유약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굽의 안쪽까지 골고루 시유하였고 규석받침, 태토비짐눈받침, 내화토비짐눈받침 등으로 번조하였다. 접시는 구경이 비교적 10cm 내외인 소접이 많으며 저부는 편평하다가 완만히 올라가 구연단에서 외반되는 형태이다. 기형에 나타나는 문양, 유약색, 태토는 대접의 경우와 비슷하고 굽 형태는 평저가 대부분이다.

분청사기는 14세기 상감청자에 뒤를 이어 15세기 초에 발생한 것으로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생산이 거의 끝난다<sup>13)</sup>. 진전사지에서 이 이러한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는데 기종에 있어 대접, 접시, 잔 등 다양하게 보이며 특히 대접이 대다수를 이룬다. 문양은 내외면에 선문, 인화문, 연화문, 도식화된 초문 등을 시문하였고 시문 방법으로는 백토 상감을 이용하였다. 굽은 죽절굽과 짧은 수직굽 등이 관찰된다. 태토는 회청색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암녹색, 담녹색, 암녹청색, 암회녹색을 띠는 유약을 시유하였다. 유약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주로 태토비짐눈받침으로 번조하였다. 형태는 저부는 편평하다가 위쪽으로 완만히 올라간다. 기벽은 두터운 것이 많은 편이다.

진전사지 출토 백자의 경우 기종에 있어서 대접, 접시, 잔, 주자, 향로 등 다양한 모습이 관찰되며 그 가운데 대접이 63점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태토는 주로 회백색, 유백색으로 이중 회백색의 경우 양질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청백색, 회청색, 회녹색, 회갈색, 회백색, 담녹색을 띠는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유약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굽주위는 시유하지 않았다. 굽은 삼각도립굽, 죽절굽과 수직굽이 있고 번조시에는 가는 모래받침, 태토비짐눈받침, 내화토받침을 사용하였다. 굽 안쪽에는 “三”, “室”, “乙”, “云” 등의 묵서명도 보인다. 이들 묵서명 백자의 경우 대접, 접시, 완 등 기형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그 수는 많지 않다. 형태는 대접의 경우 비교적 경사지게 올라가다가 외반하는 형태이며 접시의 경우 대접에 비해 완만히 올라가는 형태이다. 이러한 백자는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다양한 시기의 형식이 관찰된다.

진전사지에서 보여지는 자기는 전 지역에 걸쳐 청자, 분청사기, 백자가 나타난다. 이는 이곳의 사찰이 고려를 거쳐 조선에까지 이르는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사진 20).

13) 강경숙, 1989, 『한국도자사』, 일지사, 167~168쪽.



사진 20. 청자류 나온 모습

## VI. 맺는말

이번 진전사지 발굴조사 결과, 사지의 범위는 크게 진입을 위한 남쪽축대지역(계단지, 추정중문지, 추정누각지)과 건물지1(법당지)을 비롯한 중심지역(건물지 2, 3, 4, 5, 6, 7, 8, 9), 북쪽축대 위쪽지역(선방지), 그리고 도의선사부도탑이 위치한 부도지 등 크게 4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역은 방형으로 남-북 70m·동-서 65m로 확인되었지만 북쪽축대 뒤편에 위치한 미조사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대규모의 산지가람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전사지의 초기사역은 전체를 포괄한 사역이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축소되어 진전사가 폐사되기 직전에는 건물지1(법당지)지역을 중심으로만 사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출된 건물지 중 남쪽측대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지 8(누각지)과 남쪽 계단 바로 북쪽에 위치한 문지(추정 중문지)는 진전사지의 지형적인 면을 감안할 때 매우 특징적인 건축양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조사된 건물지와 기단석열 밑으로 또 다른 적심과 기단석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시기의 건물이 중첩된 하층 유구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축 구성에 사용된 각종 석재들 중 치석한 석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건축시 주변의 자연 할석만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지난 1975년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陳田」銘 기와는 진전사의 정확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설악산 권금성에서 수습된 바 있는 魚文이 찍힌 암키와·영동지역 고려시대 유적에서 보이는 동일 와범의 수막새 등은 이 지역의 지방적 특색과 건축재의 제작·공급체계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유물 역시 청자·고려백자를 비롯하여 분청사기, 조선초기부터 후기까지 보이는 백자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어 건물의 연대추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진전사는 도의선사에 의해 우리나라 선종의 법문을 연 도량으로 시작하여 매우 오랜 기간동안 이 지역의 사찰로 그 법맥을 이어왔음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발굴조사에서 축적된 유구 및 출토유물, 그리고 수습된 석조물의 부재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정리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조사내용의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진전사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보다 폭 넓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박물관 회보

(2002. 1. 1 - 2002. 12. 31)

- 2002. 2. 1 : 문화관광부주관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새로 제작한 박물관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 2002. 2. 18 : 김효성주임 장학진흥과로 발령  
윤응구주임 박물관으로 발령
- 2002. 2. 28 : 손보기 박물관장 사임
- 2002. 2. : 박물관 도감4 “옛분들의 기록 - 남기고 전하고 싶었던 사연” 발간
- 2002. 2. : 민속학자료 제5집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 발간
- 2002. 3. 1 : 정영호 신임 박물관장 임명(석좌교수)
- 2002. 4. 18 - 4. 20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 46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제8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참석  
장 소 - 영남대 박물관  
참석자 - 고부자교수, 복기대, 기수연 학예연구원
- 2002. 5. 2 : 개관 21주년기념행사개최(민속복식분야)
  1. 제 20회 학술세미나
    - 가. 일시 및 장소  
2002. 5. 2.(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장소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소연주실
    - 나. 논제 및 연사
      - 1) 조선시대 기록화의 제작배경과 화풍의 변천  
이원복(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 2) 조선시대 기능적 마상의 실증적 고찰  
김향미(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대학원생) · 박성실(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
      - 3) 서울시 중계동 출토 성주이씨 대사헌 언충(1524-1582)묘 복식 고찰  
박성실(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주임교수)

2. 제 21회 특별전

가. 일시 및 장소 : 2002. 5. 2.(목) - 5. 17 (금) / 박물관전시실 및 중앙홀

나. 내용 : 중계동 출토 성주이씨 언충(1524-1582)묘 출토복식류 24점

조선시대馬上衣用 복식 30여점

3. 故 난사 석주선박사 동상제막식

가. 일시 및 장소 : 2002. 5. 2.(목) 오후 2시 / 본 박물관 중앙홀

- 2002. 5. 27 : 문화관광부 시행 2001년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결과 박물관 부문 장려상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교부받음
- 2002. 8. 6 - 8. 1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차 학예연구원 해외연수 참가  
장 소 - 중국 서안, 우르무치, 트르판, 유원, 둔황  
참석자 - 기수연학예연구원
- 2002. 9. 15 - 2003. 1. 30 : 서울우회도로 예정지 문화재지표조사  
조사지역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상암동.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대
- 2002. 9. 26. - 9. 30 : 한국복식문화학회와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협회 공동주최  
국제문화교류학회 및 전시회 참가  
장 소 - 하와이  
참석자 - 고부자교수  
내 용 - 주제발표 및 전통복식전시
- 2002. 10. 14 : 전시실 재개관(고고·역사분야)  
신캠퍼스 이전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던 고고역사분야 유물을 학술 연구 및 일반인의 관람 요청이 많아져 전시재개  
기존유물 외에도 최근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은 바 있는 사천 송지리, 경주 인왕동출토 유물을 비롯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민속품, 미술품전시
- 2002. 10. 17 - 10. 19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7회 추계학술발표회 및 제51회 정기총회참석  
장 소 - 육사박물관  
참석자 - 정영호관장, 고부자교수, 복기대, 기수연학예연구원
- 2002. 11. 8 : 제17회 정기연구발표회개최(고고역사분야)

1. 내용 : 진전사를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의 불교문화
2. 장소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세미나실
3. 논제 및 연사
  - 가. 진전사의 역사적고찰  
정영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관장)
  - 나. 최근 진전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지현병(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4. 토 론
  - 가. 박경식(단국대학교 인문학부 사학과 교수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소장)
- 2002. 11. 8 - 11. 11 : 일본 정창원 유물전 및 오사카 실크로드전 참가  
참석자 : 박성실교수
- 2002. 11. 30 : 김무현선생 사임
- 2002. 12 :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발간
- 2002. 12. 2 - 12. 22 : 경기도 양주출토 해평윤씨 기증유물 특별전  
“350년전 소년 미라와 가족사랑” 개최
1. 특 별 전
  - 가. 일시 : 2002. 12. 2 - 12. 22
  - 나. 장소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중앙홀, 제1전시실
  - 다. 내용 : 미이라전, 출토복식, 출토복식 복원품전시
2. 학술세미나
  - 가. 일시 : 2002. 12. 2(월)
  - 나. 장소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소연주실
  - 다. 논제 및 연사
    - 1) 의학분야
      - (가) 미이라 모발의 형태적 보존원인과 분석 - 장병수교수(동남보건대)
      - 미이라 피부조직의 현미경적 특성 - 장병수교수(동남보건대)
      - (나) 유전자검사 - 신경진교수(연세대)
      - (다) 연령추정 - 김종렬교수(연세대)
      - (라) 체질검사(Physical exam) 및 조직학적 소견 - 신동훈교수(서울대)
      - (마) 방사선소견 - 최영희교수(단국대 방사선과)

(바) 조선시대 발굴된 미이라의 보존방식에 대한 제언 - 한길로선생(국립과  
학술사연구소)

(사) 체질과 인류학 - 한승호교수(카톨릭대)

(아) 얼굴복원 - 조용진교수(서울교대)

(자) 피부 - 이성락교수(아주대)

(차) 가속기 질량 분석법을 이용한 연대측정 - 윤민영(서울대)

## 2) 민속분야

(가) 족보와 장의 - 윤규진(문중)

(나) 미이라 출토 분묘 분석 - 김우림교수(고려대)

(다) 지명고 - 이우용

(라) 복식류 고증 및 복원 - 박성실교수(단국대)

## 구입 및 기증받은 도서목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	7593	古蹟調査報告書 第三十二冊 彦陽校洞里 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2	7594	考古歷史學志 第 16集	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3	7595	선인들의 오랜 벗 사군자	호암미술관	기증
4	7596	한국의 토기잔(Earthenware cup of korea)	태평양박물관	기증
5	7597	한국의 문화 이미지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598	年報 1999年度	國立慶州博物館	기증
7	7599	年報 2000年度	國立慶州博物館	기증
8	7600	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김해시·동아대학교 박물관	기증
9	7601	朝鮮學報 第百七十九輯	朝鮮學會	기증
10	7602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夫餘 百濟古墳 地表調査 報告書 3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기증
11	7603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 26輯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書 4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기증
12	7604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 27輯王宮里 發掘中間報告 3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기증
13	7605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 28輯彌勒寺址 西塔 周邊 發掘調査 報告書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기증
14	7606c.1	古墳調査報告書 第 十八冊 巨濟古縣城地	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15	7607	巨濟市文化遺蹟精密地表調査報告書	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16	7608	河東姑蘇山城地試掘調査報告書	河東郡·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17	7609c.1	金海票下宅地開發事業地區內 文化遺蹟地表調査 報告書	韓國土地公社	기증
18	7610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 89輯 國產紀年銘土器·陶磁器 データ 集成 上卷	東亞大學校 博物館 國產紀年銘 土器·陶磁器 データ 集成 上卷	기증
19	7611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 89輯 國產紀年銘土器·陶磁器 データ 集成 下卷	吉岡康暢·高橋照彦·村木二郎	기증
20	7612	靈山邑城地地表調査報告書	昌寧郡·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21	7613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慶尙南道·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22	7614	所藏品圖錄	東亞大學校 博物館	기증
23	7615	2001年 특별전新羅黃金 『신비한 황금의 나라』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24	7616c.1	釜山廣域市立博物館 年報 第 23 輯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25	7617c.1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研究叢書 第 20冊 生谷洞加達古墳群 II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26	7618	嶺南考古學 28 故 虛空 韓丙三先生追悼號	嶺南考古學會	기증
27	7619	博物館誌 2000年度	漢陽大學校 博物館	기증
28	7620	學術調查報告 第21大邱寺至地區生活遺蹟II 學術調查報告書第25冊	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29	7621	大邱寺至地區生活遺蹟 III	大邱廣域市都市開發公社	기증
30	7622	學術調查報告書第28冊	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廣域市都市開發公社	기증
31	7623	學術調查報告 第23冊 우일교통차고지 신축 부지내 大邱旭水洞 391-2번지 生活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32	7624	學術調查報告書 第24冊 浦項草谷里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33	7625	學術調查報告書 第26冊 大邱患洞古墳群	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34	7626	學術調查報告書 第30冊 慶州龍江河 苑池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 慶尙北道 · 慶州 教育廳	기증
35	7627	대구 오천년	국립대구박물관	기증
36	7628	發掘調查報告 第2冊 慶州 甘山寺 法堂址	中央文化財研究院 甘山寺	기증
37	7629	發掘調查報告 第3冊 洪城 月山里 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韓國土地公社	기증
38	7630c.1	경기여성인물을 찾아서① 『그대의 맑은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경기도	기증
39	7631	웅기전	세계도자엑스포조직위원회	기증
40	7632c.1	南江댐 水沒地區 遺蹟 發掘調查報告書 第19冊貴谷洞 支石墓 및 無文土器 散布址	慶尙北道 · 세종대학교 박물관	기증
41	7633c.1	慶州 奄尾里遺蹟 試掘調查 報告書	세종대학교 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기증
42	7634c.1	의왕 월암동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세종대학교 박물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증
43	7635c.1	이천지역 고인돌연구	세종대학교 박물관 · 이천시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4	7636c.1	고양 행주산성공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세종대학교 박물관	기증
45	7637c.1	平澤 芝制洞遺蹟	세종대학교 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기증
46	7638c.1	世宗大學校 博物館 研究 報告書 第5冊 發掘調査報告書 河南省 廣岩洞 支石墓	世宗大學校 博物館 · 河南省	기증
47	7693c.1	議政府市の 歷史와 文化遺蹟	世宗大學校 博物館 議政府市	기증
48	7640c.1	龍仁 彦南里遺蹟	世宗大學校 博物館 · 동부건설(주)	기증
49	7641c.1	儀旺市の 歷史와 文化 遺蹟	世宗大學校 博物館 · 儀旺市	기증
50	7642c.1	2001년 국제 복식학회 특별전 조선시대 여성의 속옷(하의류)	단국대학교대학원 전통의상학과 복식문화학회	기증
51	7643c.1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의 조각전	호암미술관	기증
52	7644c.1	美術史學研究 231	社團法人 韓國美術史學會	기증
53	7645	月精寺 聖寶博物館 學術叢書 ①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의 재조명	月精寺 聖寶博物館	기증
54	7646	박물관개관 21주년 · 학술조사 16주년 발굴유물 특별전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55	7647	全國寺刹所藏 佛書 調査報告 第5輯 桐華寺 本 · 末寺 佛書調査報告書	社團法人聖寶文化財研究院 文化財廳	기증
56	7648	潤松文華 第61號 繪畫 XX XVII 花奔翎毛	韓國民族美術研究所	기증
57	7649c.1	한국의 구석기 연세대학교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기증
58	7650	2001연세대학교 박물관 특별강연 -21세기 한국 구석기학 연구의 나아갈 방향-	연세대학교 박물관	기증
59	7651	全南文化財研究原 學術叢書 第5冊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재)전남문화재 연구원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기증
60	7652c.1	韓國書畫遺物圖錄 第 11輯	國立中央博物館	기증
61	7653	지역문화의 해 기념 특별전 -충북문화의 원류를 찾는 물길 답사 남한강 문물-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62	7654 c.1, c.2, c.3	개교 55주년 특별기획전 12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상숙, 대물림의 내력 설촌고문서5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63	7655c.1	체험문화교실2 종교문화강좌 문화산책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64	7656c.1	韓國史研究叢報 第 114號	國史編纂委員會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65	7657	시흥의 인물	시흥시	기증
66	7658	始興文化遺産 문화유산 둘러보기	시흥시	기증
67	7659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4 시흥의 생활문화	시흥시	기증
68	7660c.1	美術 資料 第66號	國立中央博物館	기증
69	7661c.1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통도사 정보박물관	기증
70	7662c.1	정신문화연구 통권 84호 제 24권 제 3호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기증
71	7663	생활문물연구 제 2호 2001.8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2	7664	생활문물연구 제 3호 2001.10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3	7665	100년 전 충북의 옛모습 괴산군편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기증
74	7666	百濟 研究 第 34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기증
75	7667	學術調查報告 113冊 清原五松保健醫療科學產業團地(2段階) 文化遺蹟 地表調查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韓國土地公私	기증
76	7668	東洋學簡報 12호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기증
77	7669	구리문화 9	구리문화원	기증
78	7670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年報9	國立歷史民俗博物館(日本)	기증
79	7671	기록없는 역사발굴기 -유물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푸른역사	구입
80	767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구입
81	7673	朝鮮女俗考	民俗苑	구입
82	7674	韓國服飾史	螢雪出版社	구입
83	7675	한국문화총서11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상	사계절	구입
84	7676	한국문화총서11 -관아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생활사-하	사계절	구입
85	7677	동아시아해와 한민족 해양생활사 상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구입
86	7678	고구려 고분벽화연구	사계절	구입
87	7679	修訂增補版 벽수와 장승 - 法道와 장승의 資料와 解説	集文堂	구입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88	7680	예술경영 1 박물관학 박물관경영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학개론	김영사	구입
89	7681	인문학개론 총서 2006 박물관학 1 다양화하는 박물관	학연문화사	구입
90	7682	박물관학번역총서 2 박물관학 2 현대사회와 박물관	(사)박물관 협회	구입
91	7683	蒙古服飾	圖書出版 耕春社	구입
92	7684	패션 큰 사진	교문사	구입
93	7685	朝鮮王朝宮中儀 服飾	修學社	구입
94	7686	도암 이재 선생원저 국역 사례편람	梨花文化出版社	구입
95	7687	중국회화사 삼천년	학고재	구입
96	7688	21세기 한국 서예 문인화가 초대전	成均館大學校 博物館	기증
97	7689	忠南史學 第13輯	忠南史學會	기증
98	7690	경기고고학연구소 학술보고서 제1집 풍납토성 주위 재건축 부지 약사굴 보고서	경기고고학연구소	기증
99	7691	嶺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查報告 第27冊 1995~1998년도지표시굴조사종합보고서	財團法人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100	7692	嶺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查報告 第22冊 1999년도지표시굴조사종합보고서	財團法人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101	7693c.1	古印刷文化 第8輯	淸州古印刷博物館	기증
102	7694	생활문화예술논집 제24집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기증
103	7695	충북의 판목 특별전	청주고인쇄박물관	기증
104	7696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5	7697	朝鮮學報 第百八十輯	朝鮮學會	기증
106	7698	建國大學校博物館 叢書9冊 連川元堂里 舊石器時代 遺蹟發掘調查報告書(2·3·4次)	建國大學校 博物館	기증
107	7699	學術調查報告書第112冊 河南天王寺址試掘調查報告書	河南省	기증
108	7700	AFRICAN ART	아프리카미술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09	7701	密陽大學校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冊 密陽表忠碑閣 周邊整備事業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查報告書	(주)화성종합건설	기증
110	7702	壽庵孫世鎬先生寄贈文化財	영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111	7703	中齊張忠植博士古稀紀念 畫文集 -빈들에 씨를뿌리며-	刊行委員會	기증
112	7704 c.1, c.2 c.3, c.4	古文化 第57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기증
113	7705c.1	新東亞 2002년 신년호 특별부록 21세기를 움직일 화제의명저 100선	新東亞	기증
114	7706	資料를 통해 본 河南	河南省 社團法人河南歷史文化研究所	기증
115	7707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이것이 몽골리안 루트다	KBS 미디어	구입
116	7708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1편 툰드라의 서곡	KBS 미디어	구입
117	7709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2편 베링해 안개속으로	KBS 미디어	구입
118	7710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3편 대지의초상	KBS 미디어	구입
119	7711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4편 태양의제국	KBS 미디어	구입
120	7712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5편 그뤼포스의 후예들	KBS 미디어	구입
121	7713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6편 황금가지	KBS 미디어	구입
122	7714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7편 용병의 여정	KBS 미디어	구입
123	7715	KBS 문명 다큐멘터리 몽골리안 루트 개요 제 8편 천마의 제국	KBS 미디어	구입
124	7716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영상복원-무용총 고구려가 살아난다	KBS 미디어	구입
125	7717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조선최대정치이벤트-화성회갑잔치	KBS 미디어	구입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26	7718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조선판 사랑과영혼-400년전의편지	KBS 미디어	구입
127	7719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신라산 양탄자는 일본 최고의인기상품이었다	KBS 미디어	구입
128	7720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가야홍망의 블랙박스, 철갑옷	KBS 미디어	구입
129	7721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김홍도의 풍속화는 국정자료였다.	KBS 미디어	구입
130	7722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고구려 비밀의 문, 광개토대왕비	KBS 미디어	구입
131	7723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동방의 피라미드, 장군총	KBS 미디어	구입
132	7724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66세 신랑, 15세 신부-영조의 결혼	KBS 미디어	구입
133	7725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순장, 과연 생매장이었나	KBS 미디어	구입
134	7726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북녘땅 고구려 고분벽화 무엇을 그렸나	KBS 미디어	구입
135	7727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신윤복은 왜 여인을 그렸나	KBS 미디어	구입
136	7728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조선시대 궁녀는 전문직이었다	KBS 미디어	구입
137	7729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금관은 죽은자의 것이었다	KBS 미디어	구입
138	7730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토우-신라인의 사랑과 진실	KBS 미디어	구입
139	7731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발굴, 밀양 고분벽화의 진실	KBS 미디어	구입
140	7732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안악 3호분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KBS 미디어	구입
141	7733 비디오	KBS 역사스페셜 미스 고려기왕후	KBS 미디어	구입
142	7734	中韓大辭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구입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43	7735	전북의 역사문화전 3 부 안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44	7736	공예와 문화 No.1	공예문화연구소	기증
145	7737	湖南考古學報 13	湖南考古學會	기증
146	7738 c.1, c.2 c.3, c.4	단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제5기 졸업작품전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기증
147	7739	成文 理化學辭典	한국사전연구사	구입
148	7740	문화관광부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 (2차)시스템운용자관리지침서	현대정보기술(주)	기증
149	7741	博物館紀要 16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기증
150	7742	새김예술 - 부처, 답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기증
151	7743	기와, 전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152	7744	京畿 郷土史學 第 6輯	文化院 京畿道支會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기증
153	7745	도서박물관 연구총서 제 9집 국토와 지명 그 특별한 만남	한국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기증
154	7746	2001 年報 (1992~2001)	한밭教育博物館	기증
155	7747	미술사 연구 제 15호 2001	미술사연구회	기증
156	7748	충북의 민속문화	충청북도 忠北學研究所	기증
157	7749	새야새야 파랑새야	충북 개발 연구원 부설 忠北學研究所	기증
158	7750	史 學 제 3집	충청북도 忠北學研究所	기증
159	7751 c.1	京畿道 博物館	경기도 박물관 2000년	기증
160	7752	中原文化 研究叢書 第 20~24冊 清安 司馬所	槐山郡 史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기증
161	7753	槐山 阿城里土城, 多樂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槐山郡 史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기증
162	7754	清原 諷羅山城	清原郡 史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기증
163	7755	清原 壤城山城	史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64	7756	三年山城 -기본자료인 종합보존, 정비계획안-	報 恩 郡 史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기증
165	7757	韓國史研究叢報 第 115號	國史編纂委員會	기증
166	7758	고대 동아시아의 말그림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기증
167	7759	馬事博物館誌	마사박물관	기증
168	7760	濟州島 牧場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기증
169	7761	불교문화연구 第 7輯	南道佛教文化硏究會	기증
170	7762	불교문화연구 第 8輯	南道佛教文化硏究會	기증
171	7763	龍泉寺 -발굴·지표조사 및 정비복원 기본계획-	咸平郡·全南大學校 博物館	기증
172	7764	白雲和尚抄 錄佛祖直指心體要節 復元研究 結果 報告書	清州市	기증
173	7765 c.1c.2	朝鮮王朝の美	北海道立近代美術館 國際學術文化振興會	기증
174	7766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흥시	기증
175	7767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광주군	기증
176	7768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시	기증
177	7769	河南省街地迂迴道路擴·鋪裝工事區間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河南省·京畿文化財團附設 畿甸文化研究院	기증
178	7770	河南德豐~廣容淨水場間道路擴·鋪裝工事區 間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河南省·京畿文化財團附設 畿甸文化研究院	기증
179	7771	龍仁駒城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畿甸文化研究院·大韓住宅公社	기증
180	7772	龍仁甫羅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京畿地域本部·畿甸文化研究 院 大韓住宅公社 京畿地域本部	기증
181	7773	華城發安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畿甸文化研究院 大韓住宅公社 京畿地域本部	기증
182	7774	華城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畿甸文化研究院 大韓住宅公社 京畿地域本部	기증
183	7775	器興舊葛(3)宅地開發豫定地區內 遺蹟緊急試掘調查報告書	畿甸文化財研究院 京畿地方公社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184	7776	華城峰潭宅地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畿甸文化研究院 大韓住宅公社 京畿地域本部	기증
185	7777	한서대학교 박물관 총서 제3집 대죽리유적	한서대학교 박물관 한국석유공사	기증
186	7778c.1	美術資料	國立中央博物館 미술부	기증
187	7779	鎭安五龍里古墳群	群山大學校 博物館	기증
188	7780	長水群의 文化遺蹟	長水群·群山大學校博物館	기증
189	7781	文化遺蹟分布地圖 全北群山市	群山市·群山大學校博物館	기증
190	7782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	기증
191	7783	석사학위논문 朝鮮時代三身佛會圖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黃圭性’	기증
192	7784	韓國學論集 第28輯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院	기증
193	7785	忠南地方의 文化遺蹟-第13輯, 瑞山市篇	百濟文化 開發研究院	기증
194	7786	2001년국가문화유산(2차)단국대학교박물관 (민속복식여자)	현대정보기술㈜	기증
195	7787 c.1c.2	2001년국가문화유산(2차)단국대학교박물관 (고고유물)	현대정보기술㈜	기증
196	7788	인하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제18책 강화냉정 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인천광역시강화군청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197	7789	인하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제19책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198	7790	인하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제20책 월미산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서부공원사업소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199	7791	인하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제21책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1단계구간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200	7792	인하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 22책 영종 운남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201	7793	갈무리 제 2호	국립대구박물관회	기증
202	7794	호남문화연구	호남문화연구소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203	7795	바다문화학교 2000-200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증
204	7796	美術史學研究	韓國美術史學會	기증
205	7797	忠州嚴政面の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忠州博物館	기증
206	7798	忠州의 古文書(4) -기탁유물 중심으로-	충주박물관	기증
207	7799 c.1 c.2	佛敎考古學 -創刊號-	威德大學校 博物館	기증
208	7800	군사유적편람	전쟁기념관	기증
209	7801c.1	한림대학교 박물관연구총서12 寧越外龍里住居址支石墓發掘報告書	寧越郡·翰林大學校 博物館	기증
210	7802c.1	한림대학교 박물관연구총서13 春川市東面萬泉里古墳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 博物館	기증
211	7803c.1	한림대학교 박물관연구총서14 居頓寺址發掘調査報告書	原州市·翰林大學校 博物館	기증
212	7804c.1	한림대학교 박물관연구총서15 국도 7호선 (간성~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翰林大學校 博物館	기증
213	7805 c.1	한림대학교 박물관연구총서16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주)한신공영 翰林大學校 博物館	기증
214	7806	한신대학교 박물관 총서 제12 水原 古邑城	華城郡·한신대학교 박물관	기증
215	7807	한신대학교 박물관 총서 제13 京畿 南部의 朝鮮時代遺跡	한신대학교 박물관	기증
216	7808	文化財 策 三十四號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217	7809	朝鮮學報 策 百八十一	朝鮮學會	기증
218	7810	한림대학교 박물관 연구총서 11 春川의 歷史와 文化遺蹟	翰林大學校 博物館 江原道·春川市	기증
219	7811	학술조사 보고 제 117책 丹陽 傍谷里 陶窯址 情密 地表調査 報告書翰 林大學校博物館 江原道·春川市	韓國文化財保護財團·丹陽郡	기증
220	7812	文化遺蹟分布地圖 永川市	永川市·大邱大學校 博物館	기증
221	7813	영조대왕 글 글씨	궁중유물 전시관	기증
222	7814	陸軍博物館遺蹟調査報告第8輯 江原道華川郡·春川市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223	7815	학예지 제8집 관방유적 특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기증
224	7816	22 보존과학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225	7817	慶州史學	慶州史學會	기증
226	7818	嶺南考古學	嶺南考古學會	기증
227	7819	民族文化 論叢 第23輯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기증
228	7820	유리원관목록집 V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29	7821	미륵사지석탑(V·T)	전라북도익산지구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기증
230	7822	미륵사지석탑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기증
231	7823	韓國民族文化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기증
232	7824	향토문화제21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기증
233	7825	釜山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第24輯 梁山新平遺蹟	釜山大學校 博物館	기증
234	7826	山淸放牧里白磁窯址 第25輯	大晉高速公路遺蹟合同發掘調查團	기증
235	7827	東萊福泉洞鶴巢臺古墳 第26輯	釜山大學校 博物館	기증
236	7828	경기도박물관학술총서 경기민속지Ⅳ의식주편	경기도박물관	기증
237	7829	정신문화연구제29권제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증
238	7830	慶州隍城洞遺蹟 I	國立慶州博物館	기증
239	7831	慶州隍城洞遺蹟Ⅱ	國立慶州博物館	기증
240	7832	전남의선사와 고대를 찾아서	전라남도	기증
241	7833	박물관연보제8호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42	7834	박물관연보제9호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43	7835	목포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제80책 탐진댐수몰지역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학교 박물관 ·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기증
244	7836	목포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제81책 여수화장동약물고개 대방리지석묘	목포대학교 박물관 · 여수시	기증
245	7837	목포대학교 박물관학술총서제82책 함평월야순춘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 농업기반공사 함평시	기증
246	7838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61책 和順支石墓群	목포대학교 박물관 · 전라남도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247	7839	목포대학교 박물관학술총서제63책 부안양장리 유적 II	목포대학교 · 철도청	기증
248	7840	목포대학교 박물관학술총서제64책 문화유적시굴, 발굴 조사 보고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49	7841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65책 남악신도시개발예정지역내 문화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전라남도도청이전사업본부	기증
250	7842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66책 영광 학정리, 함평 용산리 유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51	7843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69책 咸平 上谷里 松山 支石墓	영산강농지개발조합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52	7844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0책 장흥 지천리 유적	한국수자원공사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53	7845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1책 도갑사II	영암군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54	7846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2책 함평 장년리당하산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한국도로공사	기증
255	7847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3책 함평 성남, 국산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한국도로공사	기증
256	7848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4책 전남 서부천광역상수도사업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한국수자원공사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57	7849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6책 남창-삼신간 국도 학 · 포장공사구간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 박물관 (주)극동엔지니어링	기증
258	7850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5책 무안공항건설지역내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	목포대학교 박물관 서울지방공항공청	기증
259	7851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8책 삼향-삼호간 도로 포장공사 예정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60	7852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7책 고군-임회간 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진도군 목포대학교 박물관	기증
261	7853	목포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제79책 영산강급호1-1공구, 마산2공구내부개답 공사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목포대학교 박물관 농업기반공사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262	7854	전남의고대유적보존및활용방안	전라남도	기증
263	7855	전남지역고분측량보고서	전라남도	기증
264	7856	영산강유역고대사회의새로운조명	전라남도	기증
265	7857	울산연구제3집	울산대학교 박물관	기증
266	7858	울산조일리고분군 I	울산대학교 박물관 · ㈜동서기업	기증
267	7859	울산연암동유적	울산대학교 박물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증
268	7860	김해능동유적 I	울산대학교 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기증
269	7861	월정사 성묘박물관 학술총서2 <강원동 불교문화제의 종합적검토>	월정사성묘박물관	기증
270	7862c.1	토지박물관 학술조사 총서 제14집 南漢山城 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경기도	기증
271	7863c.1	科技考古研究第7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기증
272	7864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제37책 광산김씨 집성촌의역사와 민속	國立光州博物館	기증
273	7865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제38책 海南方山里長鼓峰古墳試掘調査報告書	國立光州博物館 · 海南郡	기증
274	7866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제39책 潭陽 龍秋寺 기와가마터	國立光州博物館 · 潭陽郡	기증
275	7867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41책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Ⅲ	國立光州博物館	기증
276	7868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제42책 靈光 嶺陽里 支石墓	國立光州博物館 · 國立道路公社	기증
277	786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조사보고 제2집 덕적도 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278	7870	百濟研究 第35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기증
279	7871	민속연구 제11집 마을 민속조사 어떻게 할것인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기증
280	7872	박물관 휘보 제10호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기증
281	7873	박물관 휘보 제11호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기증
282	7874	박물관 휘보 제12호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기증
283	7875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제6회특별전도록 -철도와 20세기 우리의삶-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284	7876	國立全州博物館學術調查報告第8輯 全羅北道の 佛教遺蹟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285	7877	한국의 그림	서울시스템주식회사	CD 구입
286	7878	중국내 한민족 항일 독립운동100대사적	동방미디어주식회사	CD 구입
287	7879	한국의 새	동방미디어주식회사	CD 구입
288	7880	제자백가의 나침반 이아 주소(爾雅注疏)	자유문고	구입
289	7881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90	7881	문화관광연감	사단법인 문공회	구입
291	7882	韓國建築大系 I 窓戶	普成閣	구입
292	7883	韓國建築大系 II 벽돌	普成閣	구입
293	7884	韓國建築大系 III 丹青	普成閣	구입
294	7885	韓國建築大系 IV 韓國建築辭典	普成閣	구입
295	7886	韓國建築大系 V 木造	普成閣	구입
296	7887	韓國建築大系 VI 蓋瓦	普成閣	구입
297	7888	韓國建築大系 VII 石造	普成閣	구입
298	7889	韓國建築大系 VIII 材料	普成閣	구입
299	7890	年報 第10號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기증
300	7891	年報 第11號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기증
301	7892	庖石亭鮑石亭模型展示館敷地 試掘調査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기증
302	7893c.1	博物館 年報 第 2輯	韓國教員大學校博物館	기증
303	7894	光州 新昌洞低濕地遺蹟II	국립광주박물관	기증
304	7895	문경의길과 고개 길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문경새재박물관 · 문경시	기증
305	7896	문경의 도요지II 문경새재 박물관 편	문경시	기증
306	7897	光州의 在來市場	光州民俗博物館	기증
307	7898	年報 第 11輯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기증
308	7899	慶州市 沙正洞 459-9 番地 收拾發掘調査報告書	慶尙北道文化財研究所 · 慶州市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309	7900	琴湖-東大邱間 京釜高速道路 擴張區間內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大邱 鳳舞洞·助世洞·屯山洞 遺蹟	慶尙北道文化財研究所 韓國道路公社	기증
310	7901	龜尾-琴湖間 京釜高速道路 擴張區間內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漆谷永梧里·龍山里·梧山里遺蹟	慶尙北道文化財研究所 韓國道路公社	기증
311	7902	여주 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13공구구간내 나 구역 尙州屏城洞古墳群 -本文-	慶尙北道文化財研究所 韓國道路公社	기증
312	7903	여주 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13공구구간내 나 구역 尙州屏城洞古墳群 -寫眞-	慶尙北道文化財研究所 韓國道路公社	기증
313	7904c.1	古文化 第 58輯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특집	韓國大學博物館協會	기증
314	7905	光州廣域衛生埋立場 造成事業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查報告書	光州廣域市立民俗博物館 光州廣域市都市公社	기증
315	7906	韓國先史文化消息	학연문화사	기증
316	7907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 92集	韓國歷史民俗博物館	기증
317	7908	奉業寺	京畿道博物館·安城市	기증
318	7909	京畿道博物館學術叢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II	경기도 박물관	기증
319	7910	康津郡 마을 史 -康津色篇-	康津郡	기증
320	7911	文化遺蹟分布地圖 禮山郡	忠淸南道 歷史發展研究院	기증
321	7912	利川市誌 1. 자연과 역사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322	7913	利川市誌 2. 인물과 문화유산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323	7914	利川市誌 3. 민속과 구비전승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324	7915	利川市誌 4. 정치와 경제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325	7916	利川市誌 5. 사회와 문화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326	7917	利川市誌 6. 개인 생활과 마을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327	7918	利川市誌 7. 이천시지 자료집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기증
328	7919	南北連結道路(統一大橋 ~ 長湍間)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京畿道博物館 陸軍博物館 서울地方國土管理廳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329	7920	경기도 박물관 학술총서 礪山宋氏寄贈古文書	경기도박물관	기증
330	7921	경기도 박물관 학술총서 靑海李氏寄贈古文書	경기도박물관	기증
331	7922	年報 2001年度	國立慶州博物館	기증
332	7923	대가야 학술총서 1, 한국상고사학회연구총서 5 大加耶와 周邊諸國	高靈郡·韓國上古史學會	기증
333	7924	寄贈遺物目錄 I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334	7925	寄贈遺物目錄 II 眞城李氏篇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335	7926	瑞山餘美里遺蹟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韓國道路公社	기증
336	7927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조사보고제22집 公州松谷·鳳岩里遺蹟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大田地方國土管理廳	기증
337	7928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 제 2001 ~ 4집 靑陽迂廻道路 築造 및 鋪裝工事區間內 文化遺蹟試掘調查報告書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大田地方國土管理廳	기증
338	7929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시굴조사 제 25집 牙山 臥牛里·新法里 遺蹟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주)대림산업	기증
339	7930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 제 2001 ~ 3집 天安 - 並川間道路工事區間內 (天安云田里) 文化遺蹟試掘調查報告書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大田地方國土管理廳	기증
340	7931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 제 2001 ~ 5집 無量寺	忠淸南道·扶餘郡	기증
341	7932	서울대학교 박물관연보 13	서울대학교 박물관	기증
342	7933c.1	三國時代 鐵器研究 微細組織分析을 통해 본 鐵器製作技術體系	서울대학교 박물관	기증
343	7934	2002봄호(통권 86호) 제25권 1호 정신문화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증
344	7935c.1	天安 龍院里 遺蹟 A地區(本文)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株)高麗開發	기증
345	7936c.1	天安 龍院里 遺蹟 A地區(寫眞)	(財)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株)高麗開發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346	7937	慶南大學校所藏寺內文庫 丁亥赴燕別章帖 附3帖	慶南大學校 博物館	기증
347	7938c.1	전주 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광주 고읍 인평대군과 의원군 일가	경기도박물관	기증
348	7939c.1	전주 이씨 묘 출토복식 문양집 광주 고읍 인평대군과 의원군 일가	경기도박물관	기증
349	7940	완당과 완당바람 -추사 김정희와 그의 친구들-	영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350	7941	구리시 민속조사 보고서 구리시의 민속문화	구리문화원	기증
351	7942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32책 慶州舍羅里遺蹟Ⅱ -木棺墓,住居址-	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352	7943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33책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 I	大邱光域市都市開發公社 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353	7944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40책 大邱西邊洞古墳群 I	大邱廣域市綜合建設本部 嶺南文化財研究院	기증
354	7945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93集	國立歷史民俗博物館	기증
355	7946	학술조사보고 제39책 浦項 大蓮里遺蹟 강동-홍해간도로공사(대련인터체인지)구간내	嶺南大學校 博物館	기증
356	7947	학술조사 제40책 大邱 旭水洞 古墳群 (圖版) 近隣生活施設敷地內	嶺南大學校 博物館	기증
357	7948	학술조사 제40책 大邱 旭水洞 古墳群 (本文) 近隣生活施設敷地內	嶺南大學校 博物館	기증
358	7949	학술보고 제 41책 大邱 梨泉洞 支石墓 - 大鳳洞 第 5區 支石墓의 再發掘 調査報告	嶺南大學校 博物館	기증
359	7950	학술보고 제 42책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VI 林堂 2號墳	嶺南大學校 博物館	기증
360	7951	한국 미술 2002	월간미술	기증
361	7952	호남 문화 연구 제 29집	호남문화연구소	기증
362	7953	唐津 安國寺地 精密地表 調査報告書	唐津郡 忠南發展研究院	기증
363	7954	유적 조사보고 제 1책 百濟歷史再現團地造成敷地內 扶餘 合井里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忠南發展研究院 忠清南道百濟文化圈開發事業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364	7955	유적 조사보고 제 2책 大田 壯安洞 白磁窯地	大田廣域市·忠南發展研究院	기증
365	7956	蔚山史學 第十輯	蔚山大學校 史學會	기증
366	7957	耽羅文化 第 22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기증
367	7958	博物館 誌 第 8號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기증
368	7959	서울역사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 2책 서울 탐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369	7960c.1	제주의 삶, 제주의 아름다움	국립제주박물관	기증
370	7961	韓國史研究 彙報 第 116號	國立編纂委員會	기증
371	7962	국립진주박물관 유적발굴조사보고서 제 15책 晉州城 蠡石樓 外廓 試掘調査報告書	國立晉州博物館 晉州市	기증
372	7963c.1	東岳美術大學 第 2號	東岳美術大學會	기증
373	7964	강운 최승효 기증 문화재 2 옛 그림에 보이는 꽃과 새	순천대학교 박물관	기증
374	7965	湖西文化論叢 16	西原大學校·湖西文化研究所	기증
375	7966	완당과 완당바람 -추사 김정희와 그의 친구들-	영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376	7967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 97集	國立歷史民俗博物館	기증
377	7968	동트는 강원 2002년 제 2호 통권 31호	강원도	기증
378	7969	年報 2001年度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379	7970	한국학 연구 1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기증
380	7971	水原의 옛 地圖	수원시	기증
381	7972	加羅文化 第十五輯	慶南大學校 博物館 加羅文化研究所	기증
382	7973	亞細亞文化研究 第 6輯	韓國 暎園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中國 中央民族大學 韓國文化研究所	기증
383	7974	韓國考古學 事典 上	國立文化財研究所	기증
384	7975	韓國考古學 事典 下	國立文化財研究所	기증
385	7976	晉州 平居洞 高麗 古墳群研究	景仁文化社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386	7977cd= 7977c.1	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 9책 漣川三巨里 遺蹟	경기도박물관	기증
387	7978	삼성미술관 연구논문집 제 3호	삼성미술관 2002	기증
388	7979 c.1~9	畿甸考古 창간호 2001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 연구원	기증
389	7980	全國文化遺蹟發掘調査年表 -增補版II-	國立文化財研究所	기증
390	7981	생활문물연구 제 4호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391	7982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 95集	國立歷史民俗博物館	기증
392	7983c.1	美術研究 第三百七十五號	獨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 東京文化財研究所	기증
393	7984c.1	高麗·朝鮮 木家具 民俗品展	古都舍	기증
394	7985	韓國上古史學報 第36號	韓國上古史學會	기증
395	7986	중원문화 은빛날개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396	7987	21세기 한국화가 초대전	성균관대 박물관	기증
397	7988	人文科學 第83輯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기증
398	7989	澗松文華	韓國民族美術研究所	기증
399	7990	CHINESE CIVILIZATION	亞洲文物學會	기증
400	7991	학술조사보고서 제122책 양주 고읍지구 택지 개발사업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단	기증
401	7992	釜山の 歷史와 文化	부산박물관	기증
402	7993	同과異 遼寧省·神奈川縣·京畿道 文物展	경기도박물관	기증
403	7994	2001 학년도 박물관 연보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증
404	7995	學術調查報告 第121冊 京仁運河 建設事業 豫定區間 文化遺蹟試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京仁運河株式會社	기증
405	7996	學術調查報告 第124冊 서울-동두천(포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韓國文化財保護財團	기증
406	7997	啓明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11輯 高靈~星州間 國道4車路 建設工事區間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	(주)다산이엔씨·극동엔지니어링 (주)한석엔지니어링· 계명대학교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07	7998	啓明大學校博物館 遺蹟調査 第9輯 壬辰倭亂 戰蹟記念館 建立 敷地內 高靈 朴谷里遺蹟 試掘調査報告書	啓明大學校 博物館	기증
408	7999c.1	우리 文化속의 대나무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409	8000	黒田清輝((智·感·情)) 美術研究作品資料 第1冊	東京文化財研究所編	기증
410	8001	朝鮮時代 風俗畫	한국박물관회	기증
411	8002	황실복식의 품위	궁중유물전시관	기증
412	8003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第94集	國立歷史民俗博物館	기증
413	8004	漢陽大學校博物館 叢書 第47輯 城南-長湖院間 道路開設區間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漢陽大學校 博物館	기증
414	8005	圓佛敎學	韓國圓佛敎學會	기증
415	8006	圓佛敎學	韓國圓佛敎學會	기증
416	8007	圓佛敎思想과 道德性 回復特輯 圓佛敎思想 第二十五輯	圓光大學校 圓佛敎思想研究院	기증
417	8008	1997~2001年度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財)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	기증
418	8009	國道32號線 瑞山-唐津間 道路擴張 및 鋪裝工事 區間內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財)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	기증
419	8010	天安 斗井洞 遺蹟 2001	(財)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 天安市經營開發事業所	기증
420	801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421	8012	文化遺蹟分布地圖 和順郡	和順郡·全南大學校博物館	기증
422	8013	2001 Annual Report 國立博物館年報	國立中央博物館	기증
423	8014	韓國史研究 彙報 第117號	國史編纂委員會	기증
424	8015	聽公 高亨坤博士 기증유물	원광대학교 박물관	기증
425	8016	服飾 한국전통복식 2천년	국립대구박물관	기증
426	8017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r children 한국전통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편	단국대학교 출판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27	8018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r children 한국전통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출판부	기증
428	8019	Yi Dynasty Upper Garment Insignia Patterns -胸背- 石宙善著民俗學資料 第1輯	단국대학교 출판부	기증
429	8020	Yi Dynasty Upper Garment Insignia Patterns -胸背- 石宙善著民俗學資料 第1輯	단국대학교 출판부	기증
430	8021	Personal Ornaments in Yi Dynasty -裝身具- 石宙善著民俗學資料 第2輯	단국대학교 출판부	기증
431	8022	Personal Ornaments in Yi Dynasty -裝身具- 石宙善著民俗學資料 第2輯	단국대학교 출판부	기증
432	8023	釜山廣域市博物館 研究叢書 第22冊 金丹申堡城址 I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433	8024	특별전 南道名品展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연구소	기증
434	8025	雪峰에서만나는 文人畫의향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 이천시	기증
435	8026	특별전 - 한국고대의 갑옷과 투구	국립김해박물관	기증
436	8027	세분선생님의 편지글 원제목 : 三賢手簡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437	8028	철도박물관도록	한국철도	기증
438	8029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研究叢書 第21冊 慶尙左水營城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439	8030	조선목가구대전, 나뭇결에 스민지혜	호암미술관	기증
440	8031	學術調査報告 第13輯 咸安道頂里 古墳群IV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기증
441	8032	乘報 제5호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기증
442	8033	學術調査報告 第5輯 咸安 馬甲塚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기증
443	8034	學術調査報告 第14輯 南江담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報告書 第8冊 晋州大坪里 漁隱2地區 先史遺蹟 I -住居址 · 石棺墓篇-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기증
444	8035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凸版印刷株式會社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45	8036	정한덕 교수 - 기증도서목록	부산대학교 박물관	기증
446	8037	淸州龍潭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447	8038	제7집 (2002) 회당학보	회당학회	기증
448	8039	중국의 불교사찰탐방 - 정형표-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49	8040	石燈調査報告書 -異形式篇-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450	8041	경상문화연구 제6집	경산대학교 경상문화연구소	기증
451	8042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휘보 제13호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기증
452	8043	朝鮮文化研究 第9號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문화부 조선문화연구실	기증
453	8044 c.1c.2	古文化 第59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기증
454	8045	慶州 南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증
455	8046	高麗時代 記錄文化研究 -南權熙-	淸州古印刷博物館	기증
456	8047	한국 古活字 특별전	淸州古印刷博物館	기증
457	8048	한국 고활자 학술회의	淸州古印刷博物館	기증
458	8049	파란눈에 비친 100년전의 한국코리아 스케치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459	8050	學術調査報告書 第130冊 河南天王寺址 2次 試掘調査報告書	한국문화재 보호재단·하남시	기증
460	8051	국제학 논총 제6집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기증
461	8052c.1	韓國傳統文化學校 新築 建立敷地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462	8053c.1	年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463	8054c.1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29輯 宮南池Ⅱ -現 宮南池 西北便·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464	8055	學術調査研究叢書 第5輯 南海郡古縣面 精密地表調査報告 (分司南海大藏都監址確認基礎調査)	남해문화원	기증
465	8056	學術調査研究叢書 第3輯 昌原加音丁洞遺蹟 (昌原大路擴·鋪裝工事區間內)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466	8057	學術調査研究叢書 第2輯 晉州城拱北門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467	8058	學術調査研究叢書 第4輯 統制營運籌堂址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68	8059	구리문화⑩	구리문화원	기증
469	8060	민속연보 2001년/제9호 Annual Bulletin of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Vol.9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470	8061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Ⅱ 한강 Vol.1 환경과 삶, Vol.2 문화유적(1), Vol.3 문화유적(2)	경기도박물관	기증
471	8062	國立慶州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1冊 慶州 朝陽洞遺蹟 I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472	8063	慶尙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 第25輯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내 山淸 玉山里遺蹟 -木槨墓-		기증
473	8064	정신문화연구, 기획논문 : 세계화시대의 가치관비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증
474	8065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475	8066	美術資料 第68號	國立中央博物館	기증
476	8067	南江댐 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書 第9冊 東義大學校博物館 學術叢書8 -上村里遺蹟-	경상남도·동의대학교 박물관	기증
477	8068	옹기문양	옹기민속박물관	기증
478	8069	韓國文化 2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기증
479	8070	순천 월평유적 Volume 1	조선대학교 박물관	기증
480	8071	진주교육대학교 남명학 교육총서 1 - 조식의 생애와 사상-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기증
481	8072	冠嶽어문연구 제26집 金允植·閔內秀·高永根教授 停年退任紀念號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기증
482	8073c.1	韓國上古史學報 第37號	韓國上古史學會	기증
483	8074	西海島嶼地方 先史遺蹟 地表調查報告書 西海5島嶼와 舞依島의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물관	기증
484	8075	軍浦市 大夜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試掘·發掘調查報告書	한양대학교 박물관	기증
485	8076	단양 斜只院里 태장이墓 第2次 發掘調查報告書	한양대학교 박물관	기증
486	8077c.1	마문화 연구총서마문화연구총서Ⅵ 韓國驛制史 趙炳魯 著	한국마사회마사 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87	8078 c.1c.2	釜山大學校博物館研究叢 第28輯 蔚山芳基里 遺蹟	부산대학교 박물관	기증
488	8079	제 5호 생활문물연구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489	8080c.1	함평의 민요	함평군	기증
490	8081	(財)忠靑埋葬文化財 研究院 文化遺蹟調査報告 第27輯 舒川 松內里 遺蹟	(財) 忠靑文化財研究院 大田地方國土管理廳	기증
491	8082	(財)忠靑埋葬文化財 研究院 文化遺蹟調査報告 第28輯 扶餘 正覺里 갓집골 遺蹟	(財) 忠靑文化財研究院 大田地方國土管理廳	기증
492	8083	公州市道 2號線 擴·鋪裝 工事區間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財) 忠靑文化財研究院	기증
493	8084	公州市 熊津洞 610-9番地一帶 宅地造成敷地內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財) 忠靑文化財研究院	기증
494	8085	瑞山大竹里貝봉 附錄： 大山地域에 위치한 貝봉의 年代測定과 西海岸의 古水溫研究	(財) 忠靑文化財研究院 現代精油 株式會社	기증
495	8086	釜山廣域市立 博物館 年報 第24輯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기증
496	8087	제 7회 강진 청자문화재 및 박물관 개관 5주년 고려청자와 종교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기증
497	8088	韓國民族文化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증
498	8089	年報 제 12·13합집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499	8090	美術史學研究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500	8091c.1	경기도정 50년사	경기도	기증
501	8092	嶺南考古學 30	영남고고학회	기증
502	8093	韓國史 研究 彙報 第 118號	國史編纂委員會	기증
503	8094	第1回 國際學術 심포지엄 “21世紀 博物館의 役割과 發展方向”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04	8095	특별전 / 몽골유적 조사 5년	몽골국립역사박물관 몽골아카데미역사연구소	기증
505	8096	한·몽 공동학술조사 제2책 몽고 모린 톨고이의 흉노 무덤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 몽골국립역사박물관 몽골과학아카데미역사연구소	기증
506	8097	韓國史研究 彙報 第118號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507	8098	호남문화연구	호남문화연구소	기증
508	8099	아시아문화 제16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아시아문화연구소	기증
509	8100	아시아문화 제15호 I 3·1독립운동의 의의와 특성 II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아시아문화연구소	기증
510	8101	仁荷史學 第9輯 -李忠熹 教授 退任紀念號-	仁荷史學會	기증
511	8102	해강도탈리조트 조성사업 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강화도 길상산일대	연세대학교 박물관 (주)해강도탈리조트	기증
512	8103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연세대학교 박물관 대한주택공사·파주시	기증
513	8104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1) 우리나라의구석기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기증
514	8105	고려·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	연세대학교 출판부	기증
515	8106	영남대학교 개교 55주년 기념 박물관 초대 작가전	영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516	8107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 1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증
517	8108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 2 우리의 민속과 역사	고려대학교 박물관	기증
518	8109	丹豪文化研究 第八號	용인대학교 박물관 교류문화연구소	기증
519	8110	2002 한국의 칼 특별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기증
520	811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7회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의 칼문화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기증
521	8112	한남대학교박물관총서 제11권 大田 法洞 建物址	한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522	8113	경기도박물관 연보 제5호	경기도박물관	기증
523	8114	학술조사보고 제31책 달성지구공단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524	8115	학술조사보고 제32책 경주 서부동 건물신축예정지 발굴조사보고서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525	8116	학술조사보고 제33책 경주 황남동 건물신축예정지 발굴조사보고서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526	8117	학술조사보고 제34책 경주동강동 시골, 발굴조사보고서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527	8118 c.1c.2	CD 한국학술정보 Korean Studies	한국학술정보(주)	기증
528	8119 c.1c.2	개교56주년기념 특별기획전 13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언론활동” 설총고문서VI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529	8120	개관15주년기념 기획전시회 光州의 길과 風物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증
530	8121	안동대학교박물관 제8회 특별전시회 사진으로 보는 근대안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531	8122	2002가을호(통권88호) 제25권제3호정신문화연구 - 기획논문 : 세계화시대의 한국음반 : 반성과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증
532	8123	調査報告 第75冊 文化遺蹟分布地圖 -鎮川郡-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533	8124	調査報告 第67冊 丹陽 九郎窟 遺蹟(II) - 1998年度 調査-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534	8125	調査報告 第68冊 清原 小魯里 舊石器 遺蹟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535	8126	調査報告 第69冊 義林池 情密基礎調査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536	8127	調査報告 第72冊 忠州 早洞里 先史遺蹟( I ) - 1・2次調査報告-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537	8128	調査報告 第80冊 清原 南城谷(남성곡)山城 試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538	8129	調査報告 第81冊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清原展示場 新築工事豫定敷地内 清原 老山里遺蹟 試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49	8130	調査報告第82冊 陰城峯里 청차가마터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0	8131	調査報告第83冊 沃川郡의 先史遺蹟・遺物 선사유물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선사유물・선돌지표조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51	8132	調査報告 第84冊 丹陽香山里寺地地表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3	8134	調査報告第85冊 丹陽皇信瘁灰石灰鑛山 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地地表調査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4	8135	調査報告 第 86冊 丹陽 星信洋灰石灰石鑛山 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地地表調査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5	8136	調査報告 第87冊 淸州新鳳洞 百濟古墳群 -2000年度 發掘分 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6	8137	淸州 佳景3地區遺蹟 調査報告 第88冊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7	8138	林庠默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8	8139	연보8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59	8140	연보9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60	8141	연보10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461	8142	학술조사보고 第20冊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신제조장건설부지 영주적서공단진입도로편입부지내 榮州赤西洞建物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462	8143	학술조사보고 제18책 金泉 大聖里窯址發掘調査報告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463	8144	大邱-浦項間 高速道路新設區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陰陽里·莎里·守城里·縣內里·多山里遺蹟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464	8145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기증
465	8146	학술조사보고 第19冊 京釜高速道路建設區間內 漆谷梅玩里遺蹟發掘調査報告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466	8147	학술조사보고 제15책 地域陶窯址 地地表調査報告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467	8148	博物館紀要 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468	8149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학술총서 제23책 양평 양덕리유적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증
469	8150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所藏目錄(Ⅱ)	단국대학교부설 民俗學研究所	기증
470	8151 c.1c.2	開館 韓國服飾 第20號 二十一年 紀念定期研究發表誌	단국대학교부설 석주선기념박 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71	8152	博物館紀要 1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472	8153	일산신도시 개발지역학술조사보고 1, 1992 자연과 옛사람의 삶 자연환경조사 - 고고학 발굴보고	한국선사문화연구소 · 경기도	기증
473	8154	한국복식학자 고 난사 석주선박사 추모 사진집	난사 석주선박사 추모사진집 간행위원회	기증
474	8155	朝鮮學會 第183輯 平成 十四年四月	朝鮮學會	기증
475	8156 c.1 c.2 c.3. c4	석주선기념박물관 개관19주년기념 定期研究發表誌 韓國服飾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476	8157c.1	古文化 第59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기증
477	8158	일산신도시 개발지역학술조사보고 2, 1992 일산사람들의 삶과 문화 역사민속조사보고	한국선사문화연구소 · 경기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기증
478	8159	단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제5기 졸업작품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479	8160	美術研究 第376號	동경문화재연구소	기증
480	8161	단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제3기 졸업작품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481	8162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개관19주년기념 “어린이날 우리웃잔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482	8163	조선대학교박물관 10년사 1992~2002	조선대학교 박물관	기증
483	8164	美術史學研究	社團法人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484	8165	朝鮮時代 風俗畫	국립광주박물관	기증
485	8166	密陽沙村製鐵遺蹟	국립김해박물관	기증
486	8167	연보	국립김해박물관	기증
487	8168	正祖時代의 名筆	한신대학교 박물관	기증
488	8169	수양개와 그 이웃들	丹陽郡 忠北大學校博物館 (社)丹陽鄕土文化研究會	기증
489	8170	神性和 實用 고대의 말	영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490	8171	百濟研究 第36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기증
491	8172	蔚山 大安里遺蹟	울산대학교 박물관	기증
492	8173	울산연구 제4집 특집:무덤이 말하는 고대 울산	울산대학교 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493	8174 c.1c.2	경기 여성 인물을 찾아서②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기증
494	8175	全南文化財研究院 學術叢書 第7冊 長興 朝鮮白磁 陶窯址	(財)全南文化財研究院 全羅南道·長興郡	기증
495	8176	新羅人の 記録과 筆跡 文字로 본 新羅	國立慶州博物館	기증
496	8177	遺蹟調査報告 第32冊 文化遺蹟分布地圖 -陰城郡-	陰城郡·清州大學校博物館	기증
497	8178	21세기 한국 현대도예작가 초대전 -분청 그 자유와 순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기증
498	8179 c.1c.2	劍의 起源	미리내	기증
499	8180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8 順天 仙巖寺 掛佛幀	통도사성보 박물관	기증
500	8181	梁山の 歴史와 文化	통도사성보 박물관	기증
501	8182	미술사학연구 235	사단법인 한국미술사학회	
502	8183	한국상고사학보 제38호	한국상고사학회	
503	8184	한국성곽연구회 창립 학술회의	한국성곽연구회	
504	8185	한국민족문화 19, 2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505	8186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제7회 특별전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506	8187	학술조사보고 제129책 경산 중소기업 제3연수원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507	8188	학술조사보고서 제128책 울산 온인~두왕간 국도4차선 건설 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508	8189	학술조사보고 제132책 경주 황성동 유적 -537-1~10, 537-4, 538-3, 544-1, 6번지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시	
509	8190	학술조사 보고 제133책 경산 사동 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토지공사	
510	8191	생활문화연구 제6호	국립민속박물관	
511	8192	고려, 조선의 대외관계	국립중앙박물관	

연번	번호	책 이 름	펴 낸 곳	비고
512	8193	대한불교 조계종 정보문화재 조사보고서 2 불교 문화재 지정현황 목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513	8194	대사헌 이언충 성주 이씨 언충대사헌현조묘 출토복식문화재지정 제243호(CD)	성주이씨도정공파종회	
514	8195	대사헌 이언충 성주 이씨 언충대사헌현조묘 출토복식문화재지정 제243호(VTR)	성주이씨도정공파종회	
515	8196	화순 도산유적 2002	조선대학교 박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516	8197	조선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3책 광주 치평동 유적-구석기, 갯신세층 시굴조사 보고서	조선대학교 박물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517	8198	사회교육관 개관기념 특별전 전통을 잇는 전북사람들 工匠人	국립전주박물관	
518	8199	전국 사찰소장 불화 조사보고 제6집 수덕사 본,말사 불화 조사보고서	사단법인 정보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7970			
	8026	학술조사보고 제33책 경주 황남동 건물 신축 예정지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8027	학술조사보고 제34책 경주 동강동 시굴 발굴 조사 보고서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8028	CD. 한국 학술 정보 Korean studies	한국학술정보(주)	기증
	8028c.1	CD. 한국 학술 정보 Korean studies	한국학술정보(주)	기증
	8028c.2	CD. 한국 학술 정보 Korean studies	한국학술정보(주)	기증
	8029	개교 5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13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언론활동” 설촌고문서 VI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8029c.1	개교 5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13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언론활동” 설촌고문서 VI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8029c.2	개교 5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13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언론활동” 설촌고문서 VI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0	개관 15주년 기념 기획 전시회 光州의 길과 風物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증

연번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8031	안동대학교 박물관 제 8회 특별전시회 사진으로 보는 근대 안동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2	2002가을호(통권88호) 제23권 제3호 정신문화연구-기획논문 세계화시대의 한국음반 : 반성과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증
	8033	調査報告 第75冊 文化遺蹟分布地圖-鎭川郡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4	調査報告 第67冊 丹陽九郎窟 遺蹟(Ⅱ)-1998年度 調査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5	調査報告 第68冊 清原小魯里舊石器遺蹟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6	調査報告 第69冊 義林池 精密基礎調査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7	調査報告 第72冊 忠州 早洞里 先史遺蹟(Ⅰ)-1·2次 調査報告-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8	調査報告第80冊 清原 南城谷(남성골) 山城 試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39	調査報告第81冊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清原展示場 新築工事豫 定敷地内 清原 老山里 遺蹟 試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40	調査報告第82冊 陰城 筍里 청자가마터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41	調査報告第83冊 沃川郡의 先史遺蹟·遺物 선사유물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선사유물·선돌지표조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42	調査報告第84冊 丹陽香山里寺地地表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8043	調査報告第85冊 丹陽皇信庠石灰鑛山 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地地表調査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 알 릘

<박물관 기요>에 보재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 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1. 투고 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 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디스켓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투고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 연구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을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에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09-2185~6  
709-2935, 2268

## <박물관기요> 17

2002년 12월 일 인쇄  
2002년 12월 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年 2月 27日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02) 709-2185~6, 709-2935, 2268

편집 新 陽 社 (02) 2275-0834, 4585